(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42 1981년10월12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October 12, 1981

한국일보 토론토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OCT 21 1981

(칼라)

# 제6회 사진촬영대회

## <장려상>「자연의 힘」 이희진

◇이희진양

### 막간 이야기

"높으신 분"의 자녀인 탓으로 불운을 감수해야 한 사건이 지난 제6회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 심사과정에서 재연됐다. 5명의 심사위원의 결정투표에서 최다수 득표로 특선(최고상)의 영예를 따냈으면서도 현직 사진협회장의 딸이기 때문에(부친 이회장이 심사위원장)그 영예를 양보, <장려상>으로 물러앉은 역작이 18세 소녀 이희진양의 「자연의 힘」이다.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다이나믹한 낙하를 실감나게 포착, 작품화한 작품 「자연의 힘」은 이양의 1년간 카메라 수업의 결실!

이양은 작년에 부친 이인덕씨가 사준 니콘·코맷(Nikon Komat)카메라로 친구들과 함께 작품구상을 했다. 이 작품은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앞까지 유람선을 타고 접근, 구경하다가 번득 상이 떠올라 폭포를 옆에서 찍은 것이라 한다.

◁금주의 행사▷

(10월12일~18일)

◇10월15일(목)하오5시 실협현상문예 시상식
한인회관내 협회사무실
연락처 : 752-7771

◇10월17일(토)상오9시~하오5시 천주교노인회 가을소풍, 세인트·캐서린 축소판 세계일주
연락처 : 863-0415

◇10월17일(토)상오11시 한인회 주최 경로잔치
토론토한인회관
연락처 : 755-9288

◇10월17일(토)상오11시~하오3시 자선바자회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친교실
(300 Bloor St. W.)
연락처 : 925-6261

[편집자주 : 본사는 교민사회의 행사를 매주 월요일자에 종합게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행사를 간접지원키로 했읍니다. 종교단체의 정기적 종교집회는 본란에서 제외됩니다. 본란게재를 희망하시는 행사주관자는 전화 533-2361 김종환기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웅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 북미야구 엑스포스 승승장구

## 월드시리즈 진출할 가능성

## 카터 2점 홈런으로 필리에 3:1승

지난 2년간 북미 프로야구의 내셔날·리그 결승진출 일보전에서 아깝게 물러났던 몬트리얼·엑스포스가 1년만에 80년도 우승팀 필라델피아·필리를 3:1로 두번연달아 격파, 2승을 올림으로써 내셔날리그(NL)동부조 우승을 눈앞에 두고있다.

NL올스타 캐처(포수)인 엑스포스의 게리·카터는 8일밤 몬트리얼에서 속개된 필리와의 2차전에서3회말 레프트 담장을 넘는 결승투·런 홈런을 날림으로써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날 올림픽 스타디엄의 날씨는 섭씨 7도로 야구경기에는 추운날씨 였으나관중은 45,896명으로 대만원이었다.

몬트리얼의 승리는 투수력에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몬트리얼은 지난9월 윌리암 감독을 해임하고 단순한 야구행정가 짐·팬닝을 기용한뒤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여름 야구사상 초유의 시즌중 선수파업으로 전기 후기로 나누어 벌어진 프로야구리그에서 전후기의 승자들은 지난 6일부터 결승토나먼트 진출권을 놓고 각조 5전3선승제의 우승결정전을 벌이고있다.

엑스포스와 필리의 대결은 1년전 NL동부조 우승을 놓고 3연전을 벌였던때와 똑같은 양상이다. 필리는 올림픽 스타디엄에서열린 3연전에서 승리했다.

필리는 그후 휴스톤을격파하고 캔사스시티와 월드시리즈를 벌여 7전4승3패로 80년도 북미프로야구를 제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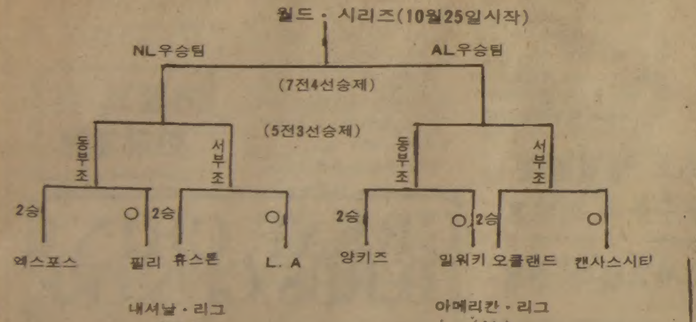
지난7일 두팀의 1차전에서 엑스포스는 3:1로 필리를 격파, 승기를 잡았다.

필리는 다음날 2차전에서 또 패배하자 감독 달라스·그린은"앞으로 필라델피아에서 벌어질 경기에서 우리는 3연승을 거둘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장담은 못하겠다"고 조심스럽게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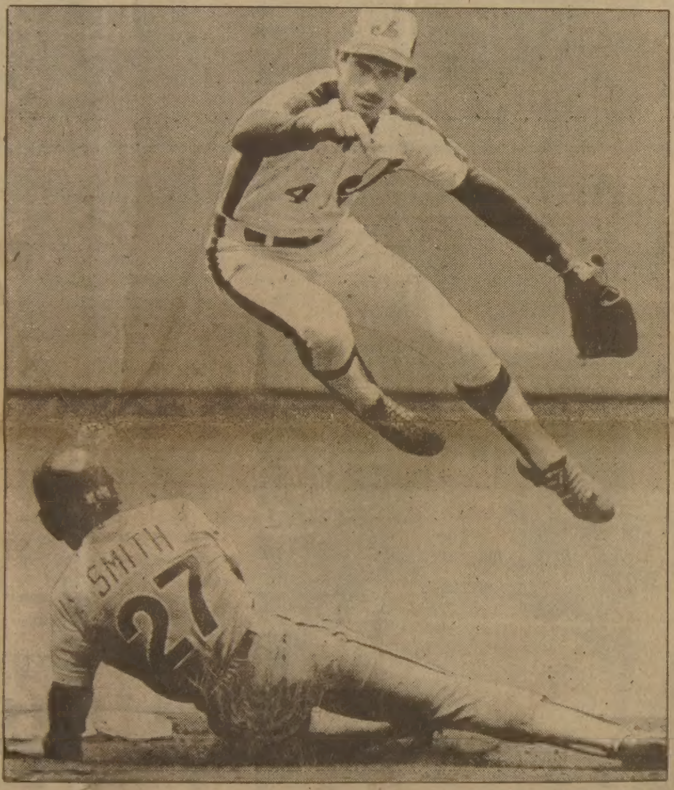
한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다시한번 최하위로 탈락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조에서는 뉴욕 양키스가 밀워키·브르워스를 5:3, 3:0으로 물리침으로써 매직·넘버원(1승만 올리면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2패 당한 밀워키·브르워스의 황팀(Farm Team—"마이너 리그팀의 별칭으로 보통 프로구단은 5—6개의 마이너리그팀을 소유, 선수들을 길러내고 있다. )에는 한국의 박철순선수가 B급 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결승전 전적과 대진표> (8일 현재)




(모든 게임이 TV중계 된다)



◇엑스포스 숏스톱 크라스 스페이어는 필리의 로니·스미스가 2루에 스틸하는 것을 포스드·아웃(forced-out)시킨후 공중을 날아 1루에 송구하고있다. 엑스포스가 필리에게 3:1로 이겨 2승을 기록했다.

# 의욕찬 문학등룡문

## 제5회 "신춘문예"

캐나다한국문인협회 (회장 박충도)는 제5회 「신춘문예」현상모집을 실시한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실시, 캐나다 교포중에서 숨은문재(文才)를 발굴하여 문단에 진출시키고, 교포사회의 정서순화와 이땅에의 한국문화의 이식, 배양및"제3문학"이라 할 수 있는「이민문학」의 정립에 일익을 담당케코자 순수문학 모든분야에 걸쳐 공모한다.

문인협회는 과거 4년에 걸친 신춘문예를 통해 10여명의 신인을 이땅 한국문단에 데뷰시켰으며, 이제까지 3권의 합작집<새울>, <이민문학>, <이민도시> 를 발행했다.

이번 신춘문예의 모집요항은 아래와 같다.

◇종류

시(시조포함)—편수 제한 없음.

단편소설—200자지 30~60매

수필—200자지 10매내외

평론—테마자유, 200자지 40매 이내

희곡—200자지 60~120매

아동문학—동화(200자지 30매 이내)

동시(동요, 동화시 포함) 편수 제한없음.

마감 : 81년12월15일

제출처 : 캐나다한국문인협회(Korean Canadian Pen Club) 5Massey SQ #2008 Tor, Ont M4C 5L6

발표 : 1982년 1월1일

시상 : 각부문 당선작, 가작 각1편.

심사 : 문인협회 심사위원회.

※참고—응모작품에는 각편마다 이름(본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꼭적을것. (가명이나 필명은무효)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새 리스팅

도넛샾 :
①주매상 $3500. 6개월된 전망 밝은지역
렌트 : $3000. 10년+10년 옵션. $90000다운
가격 : $180.000
②월순수익 $9000보장. 운영이 간단하고 시간짧음
렌트 : $1,060. 8년+10년옵션. $140,000다운
가격 : $185,000

커피샾
①5일간 영업. 7시부터 5시반까지 오픈.
주매상 : $2,500. 렌트 : $1,225. 3년+3년옵션
가격 : $75,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①주매상 : $5,500. 렌트 : $750. 5년+3년
가격 : $50,000
②주매상 : $6,700. 새로꾸민 전망 밝은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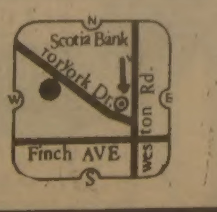
넓은 방갈로
(던다스와 Hwy427)교통이 편리하고 벽돌로 된 단층집. 3 베드룸. 파이어 플레이스 2개. 65×170. 뒷 마당크고 잘 단장된 큰 지하실 $65,000다운. 17% 2년간 몰게지 잡아줌.
가격 : $164,900

101 DUNCAN MILL RD. SUIT404
DON MILLS, M3B 1Z3
(B) 449-8644, (H) 286-1548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WANIN TAEKWON-DO
THE LEADING STYLE IN THE ART AND SCIENCE OF TAEKWON-DO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무도진수와 지도권위로
1. 고상한 인격도야와 신체단련을 시킨다
2. 강한 개성의 확립과 신념의 인간을 만든다
3. 위기를 무난으로 피하는 자기능력을 키워준다
4. 문제아 선도및 학업능률을 향상시킨다
※한국인 자녀를 특별할인우대 · 한국인사범 직접지도

KYONG LEE TAEKWON-DO CENTRE
H.Q.: 615 YONGE ST., at Isabella, Toronto (416) 929-5511
NORTH: 2281 YONGE ST., at Eglinton, Toronto (416) 483-4002
EAST: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Scar (416) 759-2500
OVER ALL CALL (416) 962-3000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 자동차 생산업계 계속불황

## 수입차는 수요증가

## 크라이슬러만 판매량 증가

계속 상승되는 물가와이자율로 9월중 캐나다의 북미산 자동차 수요가 급강하일로에 있다.

올해 캐나다의 북미산 승용차 판매는 불황이었던 작년수준보다 오히려 15%, 트럭판매는 25%로 각각하강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은 자동차 판매고가급상승했다.

자동차 생산업자는 캐나다 딜러들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장려금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에서처럼 높은 현금환불이나 이자율 보조는 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9월 한달동안 판매한 승용차 43,256대, 트럭 15,331대는 79년 같은달 판매량보다 30%미달, 올해 9월까지의 총판매량 694,763대는 작년보다 13%, 79년보다는 26% 감소된 량이다.

저렴한 가격의 수입산차들의 계속적 판매량 증가로 북미산 차들의 시장점유률이 약해진것이 캐나다 AMC(American Motors Inc)의 통계에서 나타난다.

AMC는 9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산 AMC차보다AMC와 제휴관계에 있는 프랑스산 르노 (Renault)가 더많이 팔렸다고 밝혔다.

9월중순의 11% 가격하락으로 르노 는 1년전 판매량보다 81%증가한 1,080대를 판매한 반면, AMC 제조차는 41% 하락한 918대, 지프판매는 209대로 44% 떨어졌다.

크라이슬러·캐나다(Chrysler Canada Ltd)는 작년보다 7%증가한 10,073대를 판매함으로써 호황기였던 79년9월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82년도 자동차를 6일부터 판매하는 크라이슬러·캐나다의 자동차 가격의평균 3.7%인상은 북미 주요자동차 제조회사들중 가장 적은 인상률이다.

크라이슬러 트럭은 오히려 극심한 불황기였던 80년 수준보다도12%나 적은 1,906대를 판매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의 금년도(1~9월)판매실적은작년 동기간보다 승용차 7%, 트럭 14.2%씩 각각 떨어졌다.

또한 자동차업계의 왕자 제네랄·모터스·캐나다(General Motors of Canada Ltd.)는 판매량 감소원인을 82년 모델판매의 지연에 있다고 말했다. 그중어떤모델은 내년 1월까지도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못하는 것이있다.

GM은 9월에 승용차 22,362대를 판매해 작년수준보다 25% 감소됐고, 트럭판매량은 39% 감소된 6,840대에 머물었다.

81년도 9개월 동안의 GM승용차 총 판매량은 289,136대, 트럭은 91,551대로서 작년보다 각각 16%, 22%가 감소됐다.

한편 포드는 9월에 소형승용차의 판매량이 38%나 증가되어 총 승용차 판매량 9,903대, 트럭 6,376대로 작년보다 각각 3%, 4%의 하강률을 보였다.

포드의 9월까지 승용차 총판매량은 작년보다 618대많은 117,727대, 트럭은9% 떨어진 70,114대였다.

# 문동환박사 특별집회

## "韓민족의 恨"등 설교

반정부인사로 장기 투옥됐던 문동환박사(전 한국신학대학 교수)는 토론토를 방문, 9월27일 임마누엘연합교회, 10월2일온타리오교육회관에서의 설교와 강연에이어 3,4일 토론토한인연합교회에서 특별집회를 인도했다.

민중의 恨 과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등의 제목으로 설교한 문박사는 한국인은 옛부터「恨」을 지니고 살아왔으나소망을 버리지않고 사는 민족이라고 전제한뒤 하나님은 이렇게 억울하고 핍박받는 한에 맺힌 민중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했다.

탐욕과 권력의 남용은악이라고 규정짓는 문박사는 진정으로 민중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탐욕을없애고 권력을 개인의 치부를위해 행사하지 말아야한다며 김지하시인의 시중에 나오는단(斷)을 인용했다.

◇문동환 박사

문박사는 현재 온세계적으로 개인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가풍미해있다고 경고, 이곳에 사는 교포들은 이러한 사조에 휩쓸리지말고 하나님의 경륜대로사는 창조적 소수가 되자고 역설했다.

문박사는 3.1명동성당선언사건, Y.H여공사건으로 76년과 78년 두차례에 걸쳐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미국에 건너왔다.

실형 문익환목사는 한국서 무기징역 언도를받고현재 계속 구금중에 있다.

## 한·중 외교수립 가능 중국문제 전문가 밝혀

(홍콩7일=연합)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전 북경주재 영국대사 존·애디스경은 최근 한국과 중국(중공)이 가까운 장래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리라고 예측했다고 한 주간지에의해 보도됐다.

현재 옥스포드대학 중국문제 수석연구가로 재직하고있는 애디스경은 " 양국의 외교관계수립은 아주적절한 발전단계"라고 말했다고 9월25일발행「극동 경제리뷰」가 인용보도했다.

동지의 칼럼에서 칼럼리스트 리차드·휴스는 존·애디스경의 최근 계속적중공방문후 최근의 한국방문은 충분히 의미를 주는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간지는「북경의 책임있는 사람들」과의 담화에서 중공은 한반도 전쟁재발을 막기위해 북한에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것을알았다. 과거에 중공은 북한을 전적으로 돕는것이 옳다고 생각했으나 앞으로중공의 대북한정책은 유동성이 있다는 애디스경의 말을인용 보도했다.

# 노스욕도서관 한국도서 증가

## 2차분 800여권 소설류 중심

노스욕시립도서관(1785 Finch Ave W)에 한국도서 2차분 800여권이 새로 들어왔다.

이 도서관은 이미 500여권 한국도서를 비치, 펀치와 제인지역 교민들에게널리 읽혀왔다.

동도서관 분류과(Catalog) 슈퍼바이저 박승락씨에 의하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약 3000달러의 예산으로 한국도서 800권을 새로구입, 거의 분류가 끝나 일반교민들에게 대여할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에 의하면 그동안비치했던 500여권의 한국도서는 웃드뷔·파·컴뮤니티도서관(16-18 Bradstock Rd)으로 옮겨져, 서부지역 교민들에게 대여될 예정이라 한다.

이번 구입한 도서는 70%가 소설류 이고, 나머지는 위인전등 이다. 박씨는 "교민들의 이용이 많을수록 더 많은 예산이 한국도서 구입에 할애될 수 있다"면서 많은 이용을 강조했다.

## 북한 계속 땅굴공사 적어도 12개 확인

(서울8일=연합) 주영복국방장관은 북한은 휴전선에 적어도 12개의 땅굴을 팠거나 파고 있는 중이라고 7일 발표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합동조사반의 면밀한 조사에의하여 밝혀졌다고 주국방장관이 말했다.

정교한 음파측정기와 착암기를 동원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155마일의 군사분계선(DMZ)을 계속 조사중에 있다.

주장관은 이와같은 사실을 국회본회의에서 밝혔다.

주한미사령부는 74년부터 현재까지 3개의 땅굴을 확인하였으나 더 많은 땅굴이 있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주 국방은 북한침투의 대응조처로 군대의 화산투입, 땅굴공사 추측지에 장애물설치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말했다.

주 국방은 땅굴을 통한 어떠한 북한의 침투도 즉각 발견 격퇴시킬수 있도록 국군이 배치되어 있다고 확언했다.

## 품목 다양한 바자 연합교회 여신우회

토론토한인연합교회 여신우회는 오는 17일(토)상오11시~하오3시 동교회친교실(300 Bloor St·W)에서 바자를 연다.

진열품은 수예, 편물, 의류, 도서, 식품, 화초, 잡화등이며, 따로 식단(메뉴)으로 비빔밥, 떡만두, 만두, 국수(우동), 녹두빈대떡등도 비치한다고.

가정의 벗 한국일보

## 美 실리콘 밸리 지대에

# 暗躍하는 蘇聯간첩

## 멘로팍, 산타클라라, 산호세등서 전자기밀훔쳐

**간첩이외도 직공들이 훔치는 부품 年2천만弗**

**공공연히 위장회사 차려 공산국에 빼돌리기도**

**돈벌기에만 열올리는 美회사측의 책임도커**

캘리포녀북부의 멘로·팍, 산타·클라라, 산·호세를 둘러싼 소위「실리콘·밸리」지역에서 미국의 전자산업기밀을 훔쳐내는 소련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

소련은 스파이, 도둑, 앞잡이들을 이용하여 군방위산업과 일반산업에 이용되는 컴퓨터와 전자공학 부속품등을 미국에서 빼어 돌리고있다.

경찰당국과 다른 수사기관들은 속수무책이다.

『소련이 스파이전에서 미국을 이기고 있다』고 좌절감에 빠진한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은 소련간첩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미국의 전자공학기밀을 대량으로 훔쳐내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는 지역에는 고도의 전자공학회사가 1천5백개이상 밀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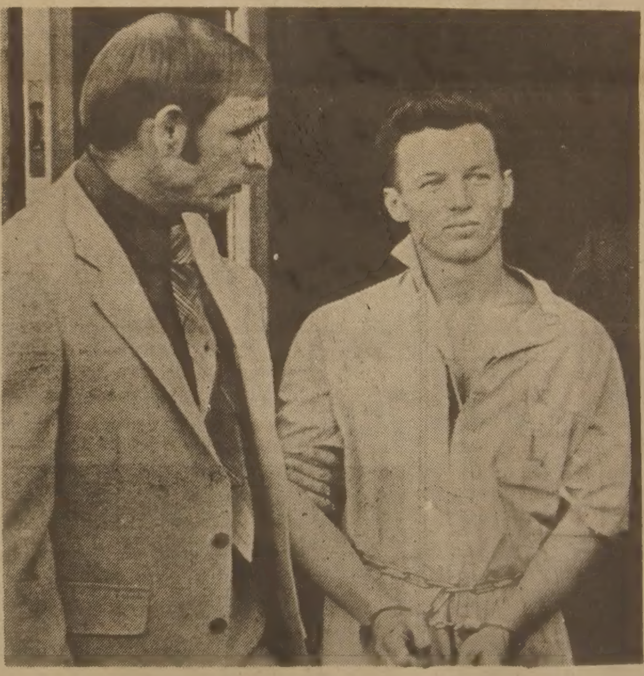
대부분의 회사들은 미국방성과 계약을 맺은 방위산업체들이다.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을 붙힌 이유는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IC)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실리콘이 전자공학회사 밀집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전자공학분야에서 미국과 서구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굉장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 생산되는 전자공학생산품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없는 실정이다.

지난 2년동안 미국수사기관에 적발된 실리콘·밸리지역의 소련간첩활동 사건중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스포·광학연구소는 독일과 스위스를 통해 소련에 군사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거울을 불법수출한 죄로 지난1월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레이저거울은 인공위성을 쏘아 떨어뜨리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금지 품목에 들어가 있다.



◇간첩 보이스—미사일, 인공위성부품등을 만드는 TRW회사에 근무중 일급비밀을 훔쳐내 소련첩자에 팔아먹은 미국청년 크리스 토퍼 보이스.

▲지난 1980년 1명의 카나다인과 1명의 이스라엘인이 소련과 동구의 수개 공산국가들을 도와 미국에서 1백50만달러어치의 컴퓨터장비들을 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상무성은 보복조치로 이들 공산국가들에 미국에 대한 수출특혜부여를 거절했다.

▲소련과 동구 공산국가들과 밀접한 접촉을 갖고 있는 한 실리콘·밸리지역 비즈니스맨은 지난8월 고도의 전자공학기밀을 회사에서 훔친혐의로 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비즈니스맨의 주요거래회사 가운데 한 회사는 소련에 미국의 전자공학

## 고도의 電子회사만도 1천5백개소 밀집한곳

## 앞잡이·도둑들을 최대한 이용, "속수무책"이라고

## FBI요원 "스파이 戰서 소련에 지고있다" 푸념

기밀을 전문적으로 팔아먹는 오스트리아의 한회사였다.

비즈니스맨으로 가장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암약한 소련간첩 가운데 이름이 잘 알려진 간첩은 워너·브루크하우센.

작년에사 미국 수사기관이 브루크하우센의 꼬리를 잡았다.

서독에 활동기지를 둔 브루크하우센은 실리콘·밸리를 자주 방문하면서 미국에 설립해 놓은 적어도 7개의 위장회사들을 통해 컴퓨터 부속품과 전자공학장비들을 구입, 와르샤바 동맹국가들에 빼돌렸다.

연방대심원은 미국내에서 위장회사를 경영하며 공산국가들에 미국의 전자공학기밀을 훔쳐팔았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브루크하우센의 한 위장회사는 지난 2년동안에 9백만달러어치의 실리콘·밸리지역 전자공학품을 공산국가들에 수출했다.

문제는 이 수출이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는데 있다.

잘 차려 입은 브루크하우센회사 에이전트들이 미국회사직원들에 접근, 방위산업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운운하며 어리둥절케 만들었다.

브루크하우센회사가 수출한 품목 가운데는 미해군정찰잠수함이 사용하는 초단파수신기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였다.

미국세관당국은 18개월간 조사끝에 이같은 미군사기밀품목의 유출을 발견했다.

브루크하우센은 아리조나주에 있는 한 방위산업 위장회사에 실리콘·밸리지역의 전자공학기밀 제품들을 발송한 다음 해외로 다시 빼돌렸다.

수송상자표면에는 모두 합법적인 수출품목들인 난방로와 전기미터기등의 표지를 붙여 놓았다.

FBI와 세관당국은 지난 2년동안의 적발사건을 토대로 실리콘·밸리지역의 소련간첩 활동 상황을 파악은 했으나 전자공학기밀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전자공학회사들은 돈을 버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지 소련간첩 적발에는 열성을 부리지 않아 실리콘·밸리는 소련간첩들의 온상이 되고있다.

전문적인 소련간첩이외에도 미국회사직원들이 조그만 전자공학 제품들을 옷속에 감추어 훔쳐내는 바람에 1년에 약2천만달러의 손실을 보고있다.

이렇게 훔쳐낸 물건들은 물론 소련간첩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관계당국이 실리콘·밸리지역의 기밀유출방지에 손을 댄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규모적으로도 너무 작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 세관당국직원은『실리콘·밸리지역의 기밀유출정도가 마치 걸르는 체에 물붓는 격』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가정의 벗 한국일보

인벤토리 회사
개업안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교민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위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소생은 도매상과 소매상에서 쌓은 경험과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인벤토리회사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는바 교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공휴일, 주야불문하고 신속정확한 계산과 성실로 봉사코자하오며 우선 신문지상을 통해 개업 인사를 드립니다.

개업일 : 1981년 10월1일
회사명 : 트러스티 인벤토리 SERVICES CO.
전 화 : 532-7741

호 세 환 배상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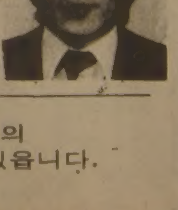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 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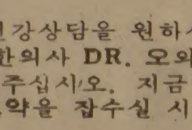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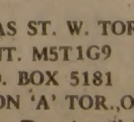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전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藥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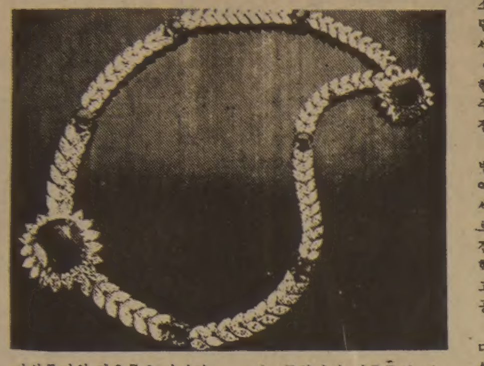
977-8858~9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 다이어먼드 2만개 소유

## 수집광 「짐·브래디」

### 14世紀때부터 權力의 상징
### 여자들 所有하자 裝身具로
### 西印度諸國서 첫 발견…처음엔 돌쪼는 道具로



스위스는 금은세공과 정밀공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여서 제네바와 같은 스위스도시들을 여행하는 사람은 보석이나 시계등 무엇이나 한가지는 사고싶어한다.

제네바에서 가장 큰 신문중의 하나인트리뷘느 ·드·쥬네브지는 보석의 도시 제네바의 신문답게 최근『다이어먼드가 언제나 여성들의 찬란한 장신구는 아니었다』란 제목밑에 「다이어먼드소사」를 실었다.

다이어먼드는 역사적으로 여성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한때는 돌을 쪼아 조각을 하는 한낱도구에 불과했으며 권력과 부와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전쟁에 나간 병사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마스코트이기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다이어먼드를 처음발견한곳은 옛서인도제국. 그곳 주민들은 다이어먼드의 견고성에 주목하여 이를 도구로 바위와 대리석에 많은 조각을 했다. 그후 봉건영주들은 다이어먼드의 찬란한 빛에 반하여 수천의 노예를 동원, 다이어먼드가 나오는 강바닥을 뒤지기 시작했다.

중세인들은 다이어먼드를 한낱 장식품으로 뿐만 아니라 마귀와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마스코트나 숭배물로 사용했고 특히 귀족이나 기사들은 전쟁터에 나갈때 칼과 갑옷을 다이어먼드로 장식하여 승리를 염원하는 마스코트로 삼았다.

14세기에 이르러 다이어먼드는 국왕이나 귀족들의 권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변모해 일반인들은 이를 소유할수 없었고 여자들이 소유하는일도 거의 없었다.

여자들이 다이어먼드를 가질수 있게 된것은 그로부터 1백년후인 15세기. 샤롤르 7세가 정부인 아네스·소렐에게 다이어를 주어 장신구로 지니게한 다음부터 였다. 아네스·소렐은 다이어먼드를 가진 최초의 평민여성이다.

이때부터 권력의 상징인 다이어먼드는 여성들의 보석으로 그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다. 같은 시대인 1477년 막시밀리앵 이란왕은 약혼녀에게 사랑의 징표로 다이어먼드가 박힌 약혼반지를 주었는데 이것이 약혼때 다이어반지를 주는 습관이됐다.

다이어먼드에 대한 원을 한껏푼 여성은 영국여왕 엘리자베드1세라 할수있다. 그녀는 다이어먼드에 대한 탐욕이 대단했고 또 온몸에 다이어먼드로 감길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그녀는 남성전용의 「다이어먼드소유권」을 박탈하여 성에게 넘겨준 장본인이라 할수있다. 엘리자베드 1세 덕택으로 오늘날의 여성들은 다이어먼드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이어먼드의 남성소유권을 끝까지 사수하려했던 사람은 프랑스의 루이14세었다. 그는 팔찌·펜던트·브로치등 다이어먼드가 박힌 온갖 장신구를 몸에 주렁주렁 걸치고 기괴한 모습을 전세계에 과시했다.

다이어먼드가 큰 역사적 변화를 겪은것은 17세기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다이어세공사 빈센처·페루치가 새로운 다이어먼드재단술을 발견한데서 부터다. 그는 기하학적인 재단으로 다이어의 고유한 빛을 내게하는데 성공했다.

그후 1866년 남아프리카에 다이어먼드광이 발견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어먼드는 큐리안으로 자그마치 3천1백6캐러트.

미국에서는 「즐거운 90년대」로 알려진 1890년대에 짐·브래디라는 유명한 다이어먼드 수집가가 나타나 다이어먼드·짐이란 별명까지 얻으며 2만개의 다이어먼드를 갖고 매일 한개씩 새다이어먼드를 지니고 다녀「왕중왕」으로 통했다.

이런뒤로 다이어먼드는 귀하고 값진 여성들의 보석으로 점점 더각광을 받아 여성이면 누구나 장신구로 다이어먼드 하나쯤은 갖고 다녀야 행세를 할수있게 됐다.

그리스의선박왕 오나시스와 영국의 명우 리처드·버튼이 보석경매장에서 큰 다이어먼드 하나를 놓고「혈전」을 벌였던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나. 승리는 버튼에게 돌아가 이 보석은 버튼의 아내인 여우 엘리자베드·테일러가 차지했고 오나시스의 아내 재클린여사는 실망을 삼켜야했다.

## 백두산 괴물출몰설 흑곰으로 판명

(서울8일=연합) 백두산정상 천지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됐던 "이상한 짐승"은 가슴에많은 하얀 얼룩이있는 거대한 흑곰으로 판명되었다고 한국 내외통신이 9일북한 평양방송을 인용보도했다.

평양방송은 관계당국에서 파견한 조사반은 지난 7월5일 새벽 5시경 문제의 곰이 정상에서 천지 주변으로 내려오는것을 목격했다.

1시간20분만에 약1.8km되는 호수를 헤엄쳐 건너간 그 흑곰은 맞은편 절벽에도달, 2시간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절벽을 올라가사라졌다 고 보도했다.

작년10월 몇몇 중공신문은 백두산 천지호에「네시」(영국 네스호수에 산다는 괴물)와 같은 괴물이 출몰하고있다고 보도한바있다.

## 교민동정

◆신동헌(화가)=약 1년간 토론토에 머물면서 만화영화사에 근무, 만화영화 제작(작화)에 종사, 맡은 일을 마치고, 뱅쿠버의 친척댁에도 체류하면서 계속본보에 〈캐나디안 랩소디〉를 집필, 연재해왔으나, 내주초 미국 뉴욕, LA등 지로 옮겨가, 앞으로 미국, 남미등을 탐방하면서 계속 〈미주 새레나대〉 (가칭)집필을 구두계약(?)하기도….

가정의 벗 한국일보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74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노래는 몇시간씩 계속된다. 대부분의 노래는 자신을 겸손하게 비난하거나아주 비겁한 사람을 직접 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이고, 또 게으른 사냥꾼을 비웃는 내용이다.

아무도 자신을 칭찬하는 법이 없다. 자기 자신에관한 노래이면 노래속의 자신은 바보이거나 사냥꾼과 연인으로서는 재간이 신통치못한 사람으로 나타낸다.

이제 열살이된 아트날릭까지 자신의 노래를 지어부르고, 어른들이 즐거운듯이 합창을 해주고, 끝이나자 모두 크게 박수를 쳐주었다.

여자들은 전혀 노래를하지 않는데, 남자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금기이기때문이다. 다만 합창만 함께하는데 캄캄한 밤중에 그들의 높은 목소리를 들으니 마치 이세상것 같지 않는 혼들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밤은 금방 새었다. 해가 새벽의 둥글고 흰 지평선위로 솟아오를때까지 게임과 노래와 이야기로 밤을 새운다. 사람들은 조금씩 요기를 하고는 버드나무가지로 엮어만든 돗자리를펴고 모두함께 누워 잠을잔다.

겨울의 긴밤을 같은식으로 보낸다. 이때는 거의가 계속되는 밤이고, 추워 때문에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지만 역시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한다. 그리고 노래꾼들은 다른 사람들의 캠프를 찾아가 귀중한선물을 주고받는다. 노래 꾼들은 북을치면서 노래를불러 경쟁도 한다.

겨울의 이글루에는 많은 새로운 노래가 지어지고, 불려진다. 그러나 노래만 부르는것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게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놀음을 하는데, 매우 흥미진진 하다. 이할미우트가 좋아하는 놀음은 그들의 풍속중 많은것이그렇듯이 다른 인디언의 것과 분간하기 어렵다.

이 놀음은 두사람, 혹은 남자들 두팀이 보자기를중간에 놓고 마주본다. 「오니」가 돌이나 다른 작은 물건을 손에감추고 재빠르게 그손을 보자기밑에 넣는다. 그런다음 쭈그리고, 앉은채로 그의 엉덩이 밑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등뒤로 다시 가져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주먹을 상대방이 훤히 볼수있도록 높이 쳐든다. 즉각적으로 두번째 사람은 그 물건이 손안의 보자기밑이나 엉덩이밑, 혹은 등뒤 어디에 있는지 알아맞추면 오니가 된다.

이길 가능성은 3대1이니까 그 돌을 차지하기 전에 갖고있던 모든것을 잃을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자를 붙여 도로 찾게된다.

이 게임은 오니가 너무 빨리 손을 놀리니까 눈으로 잘 쫓아가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눈을 재빠르게 움직이게 만든다.

옛날에는 치프유얀들이 그들의 동족이면서 원수가 된 이할미우트와 서로의땅이 갈라지는 협곡에서 놀음을 벌이곤 했었단다. 그런 놀음에 쉴사이없이 이틀밤낮동안 계속된 때도있었다고 들었다.

내가 말하는 이 놀음으로 그 인디언들이 갖고있던 모든것을 이 에스키모들이 빼앗아 왔고, 그들은 피투성이 되는 싸움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받고, 진 사람에게 총과 창을 똑같이 돌려줘야 했었단다.

이할미우트 자신들은 현실을 걸고 재빠른 눈으로 놀음을 한다. 총과 개들을 잃어버리면서 굶어 죽을수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놀음이끝난 다음에 이긴 물건을 돌려주는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진사람도 고생을하지 않는다. 그는 하루저녁 놀음에 똑같은 총을 다섯번씩이나 잃는 애매한 기쁨까지 느끼는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평상시 이 사람들이 즐기는 일들이다. 그들이 가장·즐기는것은무엇을 만들때일 것이다. 늙은 헤콰우가 새로 카약을 만들때 보면 완전히 일에 정신을 잃고 열중하고 있다. 그는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할때는 말할수없는기쁨을 맛보는 모양이다.

배열에 대는 가느다란살을 공들여 깎아 낼 때 그는 훌륭한 숙련공의 큰 기쁨을 맛본다. 또한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볍고 멋있는 배를 완성할수 있다는 행복감에 젖어있는 것이다.

작은 활로만든 드릴 끝에는 쇠각을 단 막대기로 카약의 옆면에 작은구멍을 뚫고 사슴가죽 끈으로 튼튼하게 묶는다. 전나무를쪼개서 복잡하게 장붓구멍을 파서 길게이은 세로대는나무를 약간씩 꾸부려 카약의 양쪽끝을 마무리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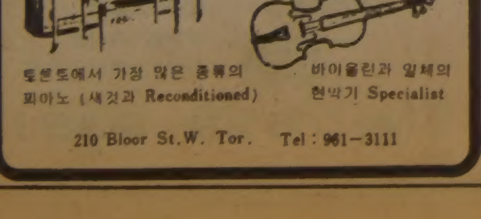
카약의 뼈대가 완성되면 마치 큰 고기의 섬세한뼈처럼 보인다. 그것은 상당한 예술작품이다. 배를 사슴가죽으로 완전히 씌운후 헤콰우는 돌을갈라서 사슴기름에 섞어 여러가지 빛깔로 칠하면 정말로 근사해진다. 물위에 띄우면 늙은 헤콰우는 카약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보람을 느낀다.

이할미우트는 그림을 칸바스에 그리거나 바위에형상에 새기거나, 흙과 돌을 깎아 무엇을 만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에는 실질적으로 값어치가 전혀없는 대상물을 만들 여유가 없는 것이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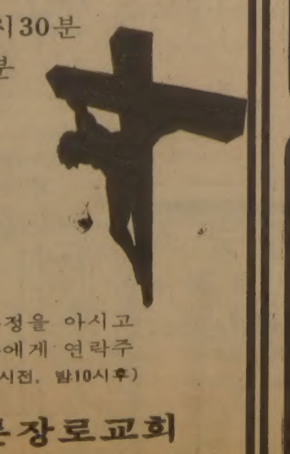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에드몬톤장로교회
EDMONTON KOREAN PRESBYTERIAN CHURCH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95 : 6)
예배시간 : 주일낮예배 : 주일낮1시30분
주일저녁 찬양예배 : 주일저녁7시30분
수요일성경공부 : 수요일저녁7시30분
토요기도회 : 토요일저녁7시30분
교회주소 : 1111E-109 AVE. EDMONTON, ALBERTA (403) 426-1596
목 사 관 : #6 4224-29 AVE. EDMONTON, ALBERTA (403) 463-2075 관 : #6
●안내 : 에드몬톤으로 이사 오시는 분이나 또 이곳 사정을 아시고 싶은 분은 전화 : (403) 424-2549 서재승 목사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읍니다. (요전화 : 오전9시전, 밤10시후)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에드몬톤장로교회
위임목사 서 재 승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Gruppe West Germany
ZEISS ●고급안경취급 West Germany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33-0684
영업시간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 7PM

大英百科辭典
BRITANNICA 3
(전30권)
교민에게 특별판매
●교회, 학교, 단체등엔 특별할인
●국민학교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쓸 수 있읍니다.
●모국의 동생, 스승, 학교에 보내는 편리한 방법도 있읍니다.
문의처 : 745-5485 미세스 황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비블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디씨워셔 구함 : 저녁6시~10시
시간당 $5.00, 저녁제공.
☎ : 532-5966 KAY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20~40세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사무원 모집 :
영어 능통하고 타이핑 경험자 우대함, 일이 쉽고 자유시간 많음.
SON BROTHERS태권도장
2188 BLOOR ST. W. (AT RUNNYMADE)
☎ : 763-1155

경험있는 풀타임 가게 헬퍼구함 : 오후4시~12시, 월 천달러 보장, 단 자동차 있어야 함.
☎ : 839-1879 스카보로 거주자 환영

캐시어 구함(EVENING PART TIME)
☎ : 767-0762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웡

사람을 찾습니다.
김경남(Kyung Nam Kim)
Date of Birth : -Nov-28-1950
(1950. 11. 28일생)
연락처 : 문덕례( Duk Rae Moon)
☎ : 744-2082

농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할사람을
구합니다.
☎ : 519-833-9827

경험있는 스위스 자수기계 OPERATOR를 급히 구합니다. 시간당 $5이상 핀치와 웨스톤 근방
☎ : 746-0054

## 매매및 양도

성업중인 자동차 정비공장을 매매코자 합니다 :
오후6시30분이후 연락바람
☎ : 533-2157. 미스터 최

매 매
365일 컨비니언스 버라이어티 스토아
PARKING하기 쉬운 중심가 에 위치, 시설완비 되있음. 다운페이 $20000에 단돈 $39500의 좋은 기회 L. VAN LIESHOUT R. E. LTD.,
☎ B) 705-457-2414,
705-457-2460 (Mike)
705-457-2071(Larry)
Haliburton Ont.

다목적 용도를 지닌 빌딩 세일
● 극장, 음악당, 체육관및 다른 큰방등을 포함.
● 다운타운에서 가까움 YANKA REALTY INC.
연락처 : 537-4156
TOM SZYMANSKI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DELE. 버라이어티 스토아 :
& 비지네스 세일(영어로 문의)
☎ : 535-3271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 2804 미세스 김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사정으로 급매 합니다.
주매상 $2,900, 렌트 $300,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2988 LAKESHORE BLVD. W.

LOOK-SQUARE FOOT당 오직 2달러
컨버니언스 스토아 PLUS. 1년이 안된 건물내에 있음. 아주 긴 리스이고 독립적이며 실내장치가 잘 되있고 장래성이 좋음.
KEN MARESCAUX
A. E. LEPAGE(ONT.)LTD.,
☎ 492-7333

콘도미늄 매매 또는 렌트 : 3베드룸, 1½목욕탕, 2car 파킹장소, 렌트 $750, 매매 $54,000, 오후2시 이후 전화요망. ☎ : 421-6016 MR. MASUDA

매매
79년 캐디락(Fleetwo) A급.
Low Milage 4Door Full Option ☎ : 759-3923

매 매
성업중인 스카보로 몰안에 있는 스모크 & 기프트 샵을 급매 합니다.
주매상 : 3000~3500달러
☎ : 281-9540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가정용 DRY GOODS
= 옷·신발류등 판매 =
상점면적 2,200 sq. ft. 고객은 나이 불문. 2 베드룸이 2개 있는 인컴 아파트. 발전하는 지역의 요지에 위치. 토론토의 북동쪽 50마일 심코호수변.
$89,900+스탁. ☎ : 1-(705) 438-3155
MARJ TRIPP 부동산회사

CHINA SHOP
건강상 이유로 매각코자함. 가격절하 Royal Doulton 프랜차이즈 상점임. 미국과 거래량 많고 발전의 여지 충분. 살림집 붙어있고 하이웨이변에 위치. 린지(Lindsay)북쪽 관광지대. $85,000+스탁
MARJ TRIPP부동산회사
☎ : 1-(705) 438-3155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 922-2241(ROSEDALE AREA)

개인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PRIVATE HARDWARE STORE FOR SALE)
좋은 자리에 있음. ASKING $41,000.
더 문의 하실분은 791-8771. 9시에서 6시(월~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 : 791-8771 해밀톤

그린애플뷰틱(양장점)매도
연매상 : 13만불, 리스 : 1년반+5년옵숀
렌 트 : $680+TAX & MAINTENANCE
순수익 : 연 $35000보장,
아스킹 : $35000+스탁
제인파크 프라자 ☎ : 766-6997 ASK. TANYA

성업중인 벡커 스토아 팝니다 :
1987 YONGE ST.
☎ : 484-0921

급매 : 개인사정으로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피아노 매매 : LESAGE피아노(아파트용 싸이즈)
액셀런트 콘디숀
☎ : 741-5949 MRS. 민

벡커 프렌차이스 매매 :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스카보로지역) 335 Glendower Circuit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533-2361-4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헬 렌 미 용 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 악 기 점

조율 SOO PIANO SERVICE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대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95 남파 · 김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 · 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가나안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 기 타

SOMÉ JEWELLERY 쏘메쎄리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 225-4641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숙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 · 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SINGER
● 전화주문 받습니다. ● 모든 종류 미싱수리, ●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 W.

## 집·방세·하숙

세놓습니다 : 2426 ST. CLAIR W. TOR. 1000 sq. ft. Store와 Full Basement, 2 베드룸 Apt. 스토아 : $400, 아파트 $350
☎ : 635-7936(B), 221-9818(R)

방세 놓습니다 : 1 베드룸,
BLOOR ST. W. 중심가
☎ : 533-0168 미스타 김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블론디
딘 · 영 作
本社特約 · 連載漫畫

"블리클리내외가 우리를 주말저녁식사에 초대했어요"
"그사람들 당신 친구요?"
"아뇨…난 당신친구들인줄 알았는데요"
"그렇다면, 저녁먹으러 가보면 그사람들이 누군가 알게 되겠군요"

비자와 매스터카드로!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뉴스·안테나

# 한국 最高의 앙상블

## 트리오가 펼친 六旬의 실내악

### 서울에서 공식 연주는 처음
### 멤버중 2명은 전·현직학장

◇한국의 백만불트리오 左로부터 朴敏鍾음악대학장, 鄭鎭宇교수, 全鳳楚교수.

# 感動의 1시간30분……

## 元老교수 朴敏鍾·全鳳楚·鄭鎭宇

**지난 9월27일 장충동 국립극장대극장엔 숨쉬기조차 두려운 뜨거운 감동이 메아리쳤다. 우리나라 音樂界의 최고 원로 三人이 심혈을 쏟아 이룬 室內樂무대. 老軀에서 뿜어나온 힘찬 선률은 그 아름다움을 떠나 하나의 충격처럼 듣는 이의 가슴을 쳤다. 「藝術은 죽을때까지 하는 것」이란 그들의 주장이 1시간30분동안 계속된 연주회 전체를 통해 몸으로 증명된 감동의 무대였다.**

### ◇使命意識 느껴

朴敏鍾(63)、全鳳楚(62)、鄭鎭宇씨(53)등 한국樂團의 원로가 이날밤의 주인공.

『물론 나이야 속일 수 없지요. 힘도 달리고 손놀림도 많이 둔해졌어요. 하지만 옛날에 힘들었던 부분이 의외로 자연스럽게 넘어 갈때도 있어요.』

이날밤 세사람이 연주한 곡은 드보르작의 피아노 3중주곡「悲歌」、스메타나의 피아노3중주곡·사단조 작품15、金容振의「피아노3중주를 위한 세개의 斷想」등 3곡이었다.

세曲 다 무척 드라머틱하고 힘이 들어가는 곡. 정신을 집중해 음악에 힘쏟았을땐 비록 불꽃튀는 힘이 필요한 곡이라도 힘들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나이 또래에 이런 연주회를 갖는 예가 흔치않죠. 젊은이에게 지지않겠다는 의지와 음악계에 반평생을 바친 사람으로서 한국음악에 느끼는 사명의식등이 큰 힘이 되어 우리를 밀어줍니다.』맑은 老顔에 온화한 미소를 띤 全鳳楚교수의 말이다.

이들이 서울大學校 피아노 三重奏團의 이름으로 실내악 연주회를 연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7년 創團한 이래 釜山·大邱·蔚山·春川·忠武·全州등 지방도시에선 여러차례 초청연주회를 가졌었다. 단지 서울의 음악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다.

이날밤 서울大피아노트리오가 청중에게 안겨준 감동의 메시지는 황홀한 音樂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선 보기드문 실내악연주회를 敎壇에 서고있는 현역교수 3人이 열었다는 사실이다. 청중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음악에 대한 철저한 성실성은 바로 人間的感動과 통한다는 점이었다.

이날 메아리친 박수와 환호는 음악을 통해 구현된 숭고한 인간본연의 자세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이 만난건 훨씬 오래전의 일이지만 三重奏團으로 선보인건 작고한 성악가 李觀玉선생추도음악회때였다.

「어떤 예술가를 기념하기 위하여」란 副題가 붙은 차이코프스키의「피아노트리오A단조」를 연주했는데 이를 통해 저절로 창단된 셈이다.

『그후로 같은 학교에 봉직한다는 잇점때문에 정규적으로 모일수 있었지요. 매주 한번씩 만나 연주회를 전제하지않고도 지속적인 연습을 해왔어요.』

결국 이런 정규적 모임이 지방연주회를 통한 무대로 귀결되었다는 얘기다.

### ◇영원한 앙상블

이번에도 개별적 연습은 계속하면서 두달전부터 본격적으로 연주회준비를 했다고한다.

『朴敏鍾선생이 학장직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내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런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여느 연주와 마찬가지로「교육자」의 틀에 머물러버리거나 조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때문에 항상 자신들을 채찍질 하지요.』

朴교수가 평교수였을 땐 全교수가 학장직에 있어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鄭교수의 얘기.

全鳳楚교수의 표현대로 동급생이나 선배들은「납북되고 죽고 활을 놓고」해서 이들은 사실상 연주활동을 갖는 음악인중 최고령 그룹에 속한다.

한편 실내악 앙상블이란 각 파트의 연주가들이 모였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실력과 취향과 개성이 어울려 調和를 이루어야 하기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

그래서 오랜시간 비슷한 생활패턴으로 살아오고 너무나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있는 이들 서울大피아노트리오는 하이페츠, 피아티고르스키, 루빈스타인으로 구성되었던「백만불 트리오」에 비견되는지 모른다.

이들이 매주 만나 음악의 황홀경에 빠져드는 서울大全교수의 방은 실제의 크기도 작은 편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宇宙가 정지해 있는듯 웅장한 느낌마저 돈다.

『鄭교수! 템포·프리모부분을 다시 해야겠어. 그러니까 8소절 前부터야.』이들이 창으로 들어오는 맑은 햇살을 받으며 음악의 三昧境에 빠져드는 순간은 6순의 노구가 날개라도 달린듯 그렇게 가벼울수가 없다.

『이 나이에 격렬한 연주활동이 몸에 무리한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연주활동을 중단하면 오히려 몸에 이상이 오죠. 반평생을 해온 일입니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치열한 작업이긴하지만 이런 과정이 바로 오늘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있어요.』

6순을 넘긴 老人답지않게 소년과 같은 순수한 표정을 간직한 朴교수의 말이다. 이들 각자가 音樂과 조우하고 정상을 차지하기위해 겪어온 인내와 고난의 세월을 더듬어보면 이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해할 수있다.

### 하이페츠·피아티고르스키
### 루빈스타인 버금가는 연주

『음악에 대한 집념·사랑, 그리고 선배 음악인의 진실어린 격려가 없었더라면 피아니스트 鄭鎭宇는 이미 이 세상엔 존재하지도 않았을겁니다.』민족의 비극 6·25를 가장 아프게 체험하고 다리를 절단하는 시련을 겪어야 했던 鄭교수의 고백이다.

이들 3人이 모두 똑같은 시대적 苦難과 試鍊을 경험한것은 아니지만 각자 줄기찬 의지와 인내로 오늘을 어룬 것은 분명하다.

『콩쿠르등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나가보면 얼마나 발라자가 많았는지 실감을 하게돼죠. 10년을 한 세대로 볼때 제자의 제자까지 같은 심사위원으로 나와있죠. 그만큼 동년배가 드물다는 얘기예요.』조금은 허탈한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오늘까지 지켜온 음악의 세계를 회억하는 全교수.

『물론 개인차야 있겠지만 동양권에 비교적 早老症이 두드러져요. 앞으로도 길이 생각해봐야할 점이죠. 젊은 연주가들이 불꽃튀는 힘의 연주를 한다면 우리는 觀照하며 음미하는 다른 차원의 연주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을때까지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연주활동을 계속하게되리라는 세사람의 입모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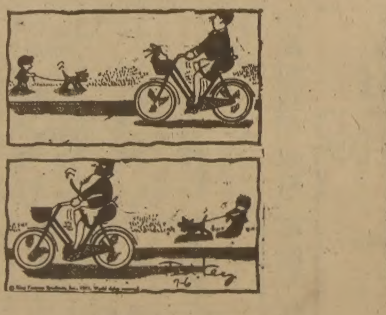
〈金京鉉기자〉

## 해외 걸작 만화

◇꿀맛지?

◇살빼기 운동

◇고속도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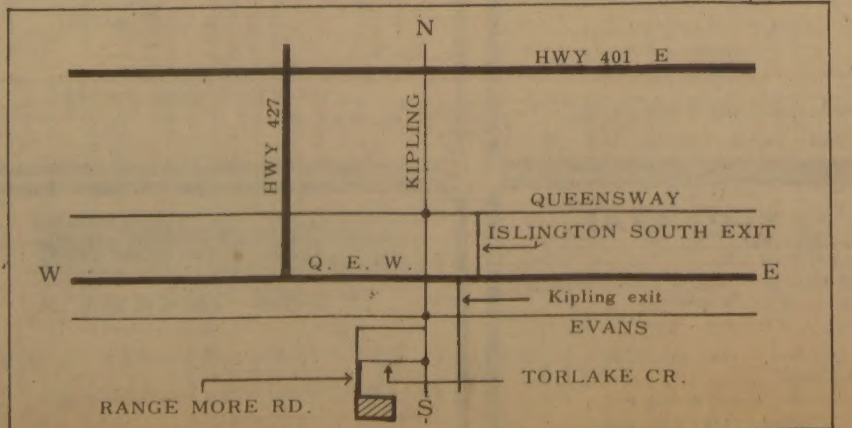
◇호기심

## 해외 걸작 만화


## 한국인의 도매상

| | | |
|---|---|---|
| Cadbury's chocolate | Reg. 36's | 9.49 |
| | Thick 36's | 13.99 |
| | Family 24's | 16.99 |
| Flame-Glo | | |
| Bozo bubble gum | 24/10's | 3.95 |
| Fiame-glo | | 6.99 |
| New freedom mini | 24/10's | 17.95 |
| Sure & Natural | 24/10's | 27.00 |
| Joy dish wash detergent liq | 16/500ml | 15.25 |
| " " | 12/1 l | |
| Magic baking powder | 12/450g | 17.15 |
| Bee hive corn sirop | 12/1 l | 18.95 |
| Melita coffee filter no.6 | Each | .89 |
| Halloween Treats | | |
| ( Rowntree, Cadbury ) | 16's | 1.99 |
| Halloween Treats (Hershey) | 16/16's | 1.09 |
| Halls prepack | | 33.29 |

## 한인연합상사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27 RANGEMORE RD.
TORONTO, ONT.

# 올림픽 1世紀

서울大會 계기로본 人類의 祭典 <4>

## 런던大會 金晟集·韓水安 첫 銅메달

## 船便에지친 崔崙七은 골앞두고졸도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는 마라톤외에 복싱의 李奎煥, 농구의 李性求·張利鎭·廉殷鉉, 축구의 金容植씨등이 日本의 대표선수로 참가, 韓민족의 뛰어난 스포츠재질을 과시했으며 후일 국내 최초의 IOC위원이된 故李相佰박사가 선수단 총무로 참여하기도 했다.

베를린에서 이룬 孫基禎의우승, 南昇龍의 3위 획득으로 韓半島내에서는 마라톤운동이 불길처럼 번졌으며 1947년 보스턴·마라톤에서 徐潤福이 1위를, 1950년 보스턴서는 咸基溶·宋吉允·崔崙七이 1·2·3위를 휩쓰는등 光復후까지 마라톤왕국의 위세를 떨쳤다.

1940년 제12회 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東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日本이 中日전쟁을 일

### 太極旗의 첫參加

으킴으로써 헬싱키로 옮겨졌고, 그것도 2차대전의 발발로 취소되고 1944년 제13회 대회도 마찬가지 운명이었다.

1948년 7월29일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않은 런던에 59개국 4천99명의 선수가 모인가운데 제14회 올림픽이 열렸다. 나라를 되찾은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단 68명도 처음 태극기를 앞세우고 그대열에 끼였다.

한국마라톤의 가장 불운한 천재 崔崙七도 처음 올림픽에 도전했다.

마라톤의 42·195㎞ 레이스에 나선 崔崙七은 천부의 힘과 스피드로 선두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결승점을 눈앞에둔 40㎞지점에 이르도록 그의 앞뒤에 아무도 보이지않았다. 웸블리·스타디움에는 신생 코리아의 崔崙七이 선두로 입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한국선수단은 흥분에 들떠있었다.

조급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으나 崔崙七은 좀처럼 스타디움 입구에 나타나지않았다. 마침내 선두주자가 웸블리의 트랙에 들어섰다. 그러나 눈을 씻고보아도 그는 태극기 아닌 아르헨티나기를 단 델포·카브레라였다. 崔崙七은 영원히 들어오지 않았다.

15일간의 배여행으로 지칠대로 지쳤던 崔崙七은 런던에 도착하자 마자 영양보충으로 기력을 되찾는게 급선무였다. 특유의 근육질로 힘이 장사였던 그는 좀 먹고 쉰후 쉴 작정으로 현지연습은 거의 하지 못한상태였다. 자신의 컨디션을 바로잡지 못한채 바람처럼 선두로 달려나갔던 崔崙七은 결국 결승점을 1천5백m 눈앞에 두고 혼절,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났다.

咸南 端川에서 태어난 崔崙七은 孫基禎, 徐潤福이후 국내에서 가장 촉망받던 마라톤의 천재였다. 런던으로 떠날즈음 그는 날마다 경이로운 스피드향상을 이뤄 마라톤계의 온 기대가 그의 두다리에 걸려있었다. 그러나 그는 마라토너로서는 생각하기어려운 딱바라진 근육형의 체격이었으며 근육이무거워 쉬 피로를 느꼈다. 양다리의근육이 부딪쳐 달릴때엔 양다리 사이에 바세린을 발라야할 정도였다.

◇1948년 1만m, 1952년 5천m, 1만m 마라톤을 석권한 체코의인간기관차 에밀·자토멕。

崔崙七은 1952년 헬싱키·올림픽에도 출전했으나 이미 전성기가 지난데다 오버·페이스로 쓰러진 英國의 강호 짐·피터스를 뒤쫓다 함께지쳐 4위입상에 그쳤다. 이대회에서 유명한「인간기관차」에밀·자토펙이 마라톤에 등장했다.

런던·올림픽에 처음출전한 한국선수단은 역도 미들급의 金晟集, 복싱 플라이급의 韓水安이 각각 銅메달을 획득, 올림픽무대에 처음 태극기를 게양하는 성과를 얻었다. 남자농구는 8위, 축구는 멕시코를 5-3으로 눌렀으나 스웨덴에게는 12-0으로 지는 전적을 남겼다.

1952년 헬싱키에서열린 제15회올림픽에는 69개국 4천9백25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동란직후의 어려움에도 불구, 한국은 35명의 미니선수단을 출전시켜 복싱밴텀급에서 姜俊鎬, 역도에서 金晟集이 銅메달을 따냈으며 마라톤의 崔崙七, 역도의 金海男, 金昌熙가 4위에입상하는 좋은 전과를 올렸다.

헬싱키대회는 올림픽사상 가장위대한 장거리선수 에밀·자토펙의 빛나는 기록으로 화려하게 장식됐다. 체코軍장교인 자토펙은 이미 런던 올림픽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1만m 金메달을 차지했으며 헬싱키서는 올림픽사상 처음 5천m, 1만m, 마라톤의 장거리 3부문을모두 휩쓸어 초인적인 스피드와 힘을 자랑했다.

소련의 시달림속에 있던 조국 체코에서 자토펙부부는 새로운 희망이요 민족의 영웅으로 환영받았다.

1968년 소련의 붉은군대가 프라하를 짓밟던날 자토펙은 소련침공규탄의 선두에 나섰다. 대령계급은 박탈되고 청소부로 전락됐다. 72년 뮌헨·올림픽에 귀빈으로 초청됐으나 그는 술로 날을 지새웠다고 베를린우승자 孫基禎씨는 회고했다.

【方錫餉기자】

# 올림픽 1世紀

서울大會 계기로본 人類의 祭典 <5>

## 맨발의 王者 아베베 마라톤 2連霸

## 黑人여성 윌마 陸上서 첫3冠王차지

1956년 지구의 남반구에서는 처음 濠洲의 멜번에서 제16회 올림픽이 열렸다. 지리적인 불리에도 불구하고 참가국은 대회때마다 늘어 71개국 3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한국은 6개종목에 출전, 복싱에서 처음 韓水安이 밴텀급결승까지 진출했으나 독일의 볼프강·베렌트에 석패, 銀메달을 획득했다. 역도의 金昌熙는 라이트급에서 銅메달, 3번째 올림픽에 출전한 미들급의 金晟集은 5위에 그쳤다. 마라톤에서는 李昌勳이 역주했으나 4위에 입상했다.

멜번대회서는 濠洲의 말(馬)에 대한 까다로운 검역법조항때문에 스톡홀름에서 분리실시됐다. 성화도 기사(騎士)의 릴레이로 따로 옮겨졌고 유럽의 각국 왕실에서 대거 참가, 中世의 기사시

### 不滅의 스타들

대를 연상케했으나 대회도중 비로 인해 61회의 낙마사고가 발생했다.

1960년에는 古代의 대제국 로마의 유적 한복판에서 제17회 올림픽이 열렸다. 83개국에서 5천명이 넘는 대규모의 선수단이 파견됐으며 로마시는 아침, 낮, 밤의 경기시간대 조절로 경기와 함께 로마유물의 관광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도 로마시청에서 출발, 古代의 포석(鋪石)이 깔린 아피아·街道를달려 콘스탄티노스大帝의 개선문에 골인토록 되었다. 그영광의 문을 제일먼저 들어선 영예의 우승자는 놀랍게도 맨발의 바싹 마른 이디오피아군인 아베베·비킬라였다. 이디오피아의 절대군주 하일레·셀라시에황제의 근위대하사관인 아베베는 제나라의부락을 순찰다니듯 가벼운 마음, 가벼운 맨발로 혼자달려 올림픽사상 처음20분대를 돌파, 2시간15분16초2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우승했다.

「맨발의 王者」아베베의 마라톤기록도전은 끝이 없을 듯했다. 1964년 東京올림픽에 출전한 아베베는 32살의 나이로 또다시 2시간12분11초2라는 상상할수없이 빠른 스피드로 우승, 마라톤사상 처음 2連霸의 영광을 안았다. 대회 불과 40여일전 맹장염수술을 받았던 그가 42·195㎞를 완주한다는 자체가 무리였다. 그러나 늠름하게 1위로 골인한 아베베는 가볍게 몸을 풀며『아직도20㎞쯤은 문제없다. 멕시코대회서는 좀더 빨리 달려 보겠다』고 말했다.

아베베는 올림픽 2連霸로 셀라시에황제의 총애를 받아 하사관에서 장교로 특진되었다. 서독, 日本등 각국의 유수한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며 군인으로서는 생각할수 없는 자유를 누리던 아베베는 69년3월 뜻밖에 자신이 몰던차의 사고로 하반신불구의몸이 됐고 73년10월25일 부인 요르달과 3남1녀를 남긴채 41세의 젊은나이로 갑자기 병사했다. 올림픽 영웅 아베베의 뜻하지않은 사고와 갑작스런 사망에대해서는 훗날까지도『누군가의 계략이다. 아니다』로 분분한 억측을 남겼다.

로마 올림픽에는 또한명의 검은 피부를가진 불멸의 스타가 등장했다. 美國뿐만아니라 세계최초의 여성3冠王인 윌마·루돌프다. 그는 운동선수로서는 天刑에 가까운 소아마비의 병고를 극복하고 로마에서 여자1백m, 2백m, 4백m계주에서 3개의 金메달을 따냈다.

윌마·루돌프의 어린시절은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졌다. 테네시州 담배농사를 짓는 농부의 19번째 아이로 태어났으나 날때부터 체중이 모자라는 미숙아였고 급성폐렴과 성홍열로 앓다가 소아마비로 번져 한쪽다리를 쓸수없었다.

어머니는 담요로 발을 싸안고 매일 90마일이나 떨어진 극빈자무료진료소로 데려갔다. 그 정성덕분인지 윌마는 8세때 비로소 걷기시작해 13세때는 정상소녀로 뛰어놀수있게됐다.

질병을 이겨낸 윌마는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여 16세때엔 테네시州농구대표로 25게임에 8백3점을 얻는 놀라운 선수가됐다. 대학에 진학,『소아마비였던 다리로는 육상을 할수없다』는 친지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달리기를 택한 윌마는 대표선발전서 우승했으며 올림픽서도 기대를 훨씬 능가하는 전과를 올려 61년美國내 최고의 아마추어선수에게 수여하는 설리반賞을 받았다. 마릴린·먼로가 살아있던 그시절 윌마의 검은다리는 먼로의 다리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찬사를 듣기까지했다.

지나치게 유명해진 윌마·루돌프는 그후 뜻하지않은 협구에 시달려 가정생활에 파탄을 맞기도 했다『금메달을 팔아 환각제를산 중독자』라는 중상도 있었고 첫남편 로버트·엘드리즈와 매스컴에 시달리다 이혼하기도했다. 두번째 이혼후 다시 엘드리즈와 결합한 윌마는 슬하에 다섯 아이를 두었다. 그런 후에도 남편 엘드리즈는「미스터·루돌프」라는지긋지긋한 유명세에 시달려야 했다.

로마에서 한국은 9종목 35명의 선수가 분전했으나 한개의 메달도 얻지 못했다. 역도의 金海男, 레슬링의 李相元이 겨우 4위를 마크했을 뿐이다.

【方錫餉기자】

◇東京올림픽에는 신발을 신고 출전, 2시간12분11초2의 경이로운 올림픽신기록으로 마라톤 2連霸를 수립한 아베베·비킬라。

# 올림픽 1世紀

서울大會 계기로본 人類의 祭典 <6>

## 辛今丹부녀 相逢은 뼈에 사무쳐

## 가슴아픈 東京대회서 은2동1

1964년 제18회 올림픽개최장소로 日本의 東京이 선정됐다.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올림픽이었다. 이때까지도 日本의 경기시설은 보잘것 없었고 교통은 엉망이었다. 적지않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한 투자에 반대했고 심지어 반납하자는 주장까지 일었다.

日本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이야말로 패전국으로서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아시아의지도적위치를 되찾을 시기라고 판단했다.

14개의 경기시설에 1백64억円, 도로·지하철 정비에 2천6백억円, 상·하수도 정비에 7백30억円, 간접시설인 東海都新幹線에 3천8백억円, 총1조8백억円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다. 올림픽사상 가장 많은 돈이든 대회였다.

그러나 東京의도시개발은 4년만에 10년을앞당겼고 국민들은 한덩어리로 뭉쳐, 이미 결정된 올림픽준비에 참여했다.

93개국 5천여명의 선수단입장 퍼레이드를보기위해 준비된

### 分斷國의 悲劇

개막식입장권 6만장은 구입신청자들의 쇄도로 공개추첨되어 하루사이에 매진됐다.

일본인들의 세심한 준비덕분으로 경기 각 분야에서 우수한 기록들이 쏟아졌다.

「맨발의 王者」아베베는 2시간12분11초2의 눈부신기록으로 최초의 마라톤2連霸를 이루었고 수영에서는 美國의 돈·숄랜더가 자유형1백m, 4백m, 계영8백m등에 출전, 올림픽신기록을 세우며 4冠王이 되었다. 美國의 로버트·헤이스는 육상1백m서 올림픽사상 최초로 10초벽을돌파, 9초9를 기록했으나 바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받지못했다.

한국은 東京올림픽을 위해 63년 로잔에서 北韓과 대좌, 홍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3차에 걸친 南北韓단일팀 구성회담을 가졌으나 실패했다. 따로 선수단을 파견했던 北韓은 IOC가 인정하지않는 가네포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의 출전이 금지되자 철수해버리고말았다. 北韓이 자랑하던 세계적 단거리주자 辛今丹은 東京의 朝鮮會館에서 서울에서 찾아간 아버지 辛文濬씨와 15년만에극적으로 상봉했으나 3천만의가슴에 분단의 비극만을 되새겨놓은채 니이가따의 北行소련배편으로 떠나갔다.

2백10명의 사상최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복싱플라이급에서 鄭申朝가 결승에 진출했으나 日本의 사꾸라이에 분패, 銀메달을땄으며 레슬링52㎏급서도 張昌宣이 日本의 요시다에게눌려 銀메달을 차지했다. 유도에서는 재일동포 金義泰가 분전, 銅메달을 획득했다.

1968년의 제19회 올림픽은 많은논란이 있었으나 해발2천2백40m의 고지 멕시코에서 열렸다.

南美대륙최초의 이 올림픽에는 가장많은 1백15개국7천4백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개막식장은 잉카, 아즈테크의 古代문화로 장식됐고 올림픽에서 처음 여성최종주자가 성화를 점화했다.

그러나 멕시코올림픽을 장식한 가장아름다운 꽃은「금발의 체조여왕」베라·차슬라브스카였다. 東京에서 이미 세계정상에 군림하던 소련의 라리사·라티니나를 물리치고 여자개인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뜀틀, 평균대등에서 3개의 金메달을 따냈던 체코의 히로인 차슬라브스카는 멕시코에서 개인종합2連霸를 기록하며 평행봉, 뜀틀, 마루운동에서도 1위를 차지, 체조사상 처음 올림픽4冠王이 되었다.

그가 두 올림픽에서 따낸 金메달은 모두 7개.

1968년 체코의 자유화운동은 소련군탱크에짓밟혔고 프라하의 하늘은 붉게 물들였다.「금발의 여왕」차슬라브스카는 마라톤의 영웅 자토펙과함께 체코의 자유화를 지지하는「2千語선언」에 서명, 소련의 탄압을 받으면서도 올림픽을 준비했다.

『체코의 침공국가들이 올림픽에간다면 우리도 가야지요. 체코의 승리를 위해서』

26세의 체조여왕 차슬라브스카는 소련의 신예 나탈리아·쿠친스카야의 집요한도전을 받았다.

◇두대회에서 7개의 올림픽 金메달을 체코에 안겨준「금발의 체조여왕」베라·차슬라브스카。

평균대규정에서 차슬라브스카의 점수는 9·60。 그러나 관중들의 요란한 항의로 심판진은 허겁지겁 채점을 재검토, 9·80점으로 정정했다。 그래도 평균대金메달은 쿠친스카야에게 돌아갔다。 쿠친스카야는 마루운동서도 19·650점을 마크. 차슬라브스카의 순서가 되었을때 체조경기장은 바늘떨어지는 소리까지도 들릴만큼 긴장과 고요에 휩싸였다。 뜻밖에도 위대한 차슬라브스카는 경쾌한「멕시칸·해트·댄스」로 정적을 깨뜨리며 멕시코관중을 감격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19·675점, 쿠친스카야를 0·25점차로 제치고 차슬라브스카는 金메달을 차지했다。

『이 모든영광을 나의조국체코에…』 소련체조를 무너뜨린 베라·차슬라브스카는 세계의 축복을 받으며 올림픽선수촌에서 東京올림픽 1천5백m 銀메달리스트인 동료 요셉·오들로질과 결혼했다。

체코의 선수단이 귀국하자 체코의 스보보다 대통령은 감격어린 표정으로 차슬라브스카의 손목을 잡았다。

『베라, 꼭 한마디만하고싶소。 세상에선 여러가지 찬사로 당신을 부르지만 그러나 체코의 우리에겐 당신은 언제나「우리의 베라」일뿐이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오』

차슬라브스카는 체코의 자유를 위해 고통당하던 스보보다 대통령, 두브체크 黨제1서기, 체르니크수상, 스므르코프스키 국회의장에게 그녀의 金메달을 모두 선사했다。

또 한사람의 멕시코 올림픽 영웅은 美國의 투원반선수 알프레드·오터. 그는 1956년 멜번에서부터멕시코까지 4번의 올림픽에서 매번 신기록을 세우며 최초로 4連霸의 위업을 이루었다。

55명이 출전한 한국은 복싱라이트플라이급의池龍珠가 銀, 밴텀급의 張淳吉(奎喆)이 銅메달을 따냈다。

【方錫餉기자】

## 金세레나, 崔戊龍과 가깝다

### 밤마다 스탠드 바서 만나 함께 퇴근

### 서로 외로운 처지…再婚할 생각 없어

演芸

거의 10년동안 줄곧 독신생활을 하고 있는 金세레나(34)가 근래에 들어 홀아비 영화배우 崔戊龍(53)과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해서 화제。

이런 소문은 崔戊龍이 6년만인 지난해말 귀국한 이후 줄기차게 나돌고 있는데 소문의 골자는 崔戊龍이 최근에는 밤만 되면 金세레나가 경영하고 있는 무교동의 스탠드 바「리도」에 찾아가 金세레나와 행동을 함께 한뒤, 밤늦게 같이 퇴근한다는 것。

또 金세레나의 어머니가 崔戊龍을 집으로 불러 음식을 대접한 적도 있을 정도로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金세레나는『서로가 외로운 처지라 자주 접촉을 가지면서 서로를 위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혼상대로 서로를 거론해 본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崔戊龍은 지난달25일 미국으로 떠났는데 그역시 金세레나와 같은 말을 하고 떠났다는것이 주위의 귀띔。

◇金세레나

## 中古 자동차값 오름勢보여

### 포니79년型 2百~百30만원

가을 관광철을 맞아 中古자동차거래가 늘어나면서 값도 오름 기미를 보이고있다.

29일 中古 자동차시장에서 추석이후 중개상들의 하루거래량은 1~2대에 불과했으나 최근들어서는 4~5대로 늘어나면서 원매자들도 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한다.

원매자들은 주로 포니, 브리사등 79, 80, 81년형의 소형승용차를 찾고 있으며 그간 1천7백대에 달했던 재고량은 1천5백대로 줄어들었다.

이와같이 수요가 늘어나자 값도 오름기미를 보이고있는데 포니 79년형은 최고 2백만~1백30만원, 80년형은 2백70만~2백만원, 81년형은 3백20만~2백70만원에 각각 거래되고있다.


한국일보 533-2361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여성 취미지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

이사 하셨읍니까?
●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533-2361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2 : 00AM
(금. 토. 일-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선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뻥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11 : 00AM~10 : 30PM
금요일11 : 00AM~11 : 00PM
토요일5 : 00PM~11 : 00PM
일요일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 世界의 特殊部隊

1976년 7월3일 밤,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감행된 이스라엘군에 의한 人質구출작전은 당사국의 意表를 찔러 실시되어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항공기의 급습에 의한 人質구출작전은 오늘날까지 서너 번 있었지만 이 작전만큼 극적으로 성공한 예는 없었던것 같다. 습격부대에게도, 인질에게도 거의 피해는 없었다. 이 기습공격으로 해서 이스라엘군의 단호한 태도로 테러행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對應이 제시됐다. 엔테베의 殊勳은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하헤블레」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그토록 大功을 세웠으면서도 그들이 이룬 갖가지 업적은 대부분 歷史의 그늘에 가려 밝혀지지 않은채 사장된다. 이렇게 햇빛을 못보는 세계의 特殊部隊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활동을 벌였는가. 귀신을 놀라게 해준 世界特殊部隊의 활약상을 연재한다.

## 엔테베 人質탈환作戰 ③

## 이스라엘 空挺部隊

<지난號 줄거리>

1976년 6월27일 이스라엘을 출발한 에어·프랑스의 에어버스 139편이 아테네상공에서 행방불명이 되더니, 팔레스타인과 독일인 게릴라들에 공중 납치되어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공항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스라엘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비행기에 탔던 유태인들은 엔테베공항내에 격리 수용되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진 후 게릴라들은 우간다방송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억류된 팔레스티나 테러리스트들을 석방하면 인질을 놓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국방성은 군사행동에 의한 인질구출 계획을 수립, 7월3일 (토요일) 한밤중에 실행키로 하고 이름「턴더볼트」작전이라 이름지었다.

■습격부대 編成과任務

작전의 모든 지휘를 맡은 페레드공군사령관이 편성한 습격부대와 그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았다.

▲총지휘관=솜론 준장

▲구출대 지휘관=네타냐프 중령

◇대원2백80명 (주로 제35공정여단및 골라니여단에서 차출)

▲1번기C-130=터미널 습격및 인질보호 (솜론준장 네타냐프중령 탑승)

▲2번기C-130=우간다부대제압·부상자치료·인질구출수송

▲3번기C-130=레이다·미그기등 파괴, 인질구출수송

▲4번기C-130=연료보급·예비대

각기마다 자체경계를 한다. 이를 지원하는 보잉여객기는 다음과 같았다.

▲B-707 1번기=총지휘·통신연락·지원(페레드공군사령관 탑승)

▲B-707 2번기=중상자치료(2반으로 편성된 의사등 33명탑승, 나이로비에서 대기)

■무전연락 中繼機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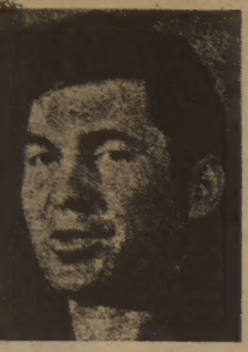
## 라빈首相은 "실패경우 스스로 責任지겠다"

이밖에 C-130 1대가 나이로비에서 급유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기했고, 또 다른 C-130 1대가 습격부대와 텔아비브사령 전실과의 무전연락의 중계기(中繼機)로 준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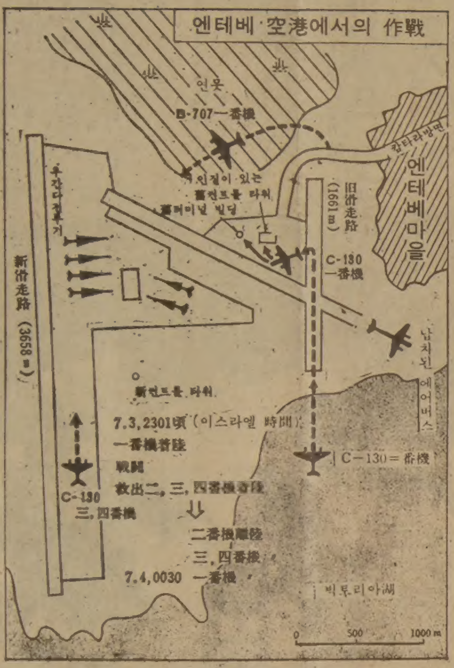
8대의 F-4E 팬텀기는 호위용 전투기로 준비되었다.

습격부대가 발진하기 훨씬 전에 엘알항공(이스라엘국립항공)의 번호와 표지를 단 B-707 1번기가 출발했다. 이 비행기에는 작전의 총책임자인 페레드공군사령관과 아담작전부장이 탑승하고 있었고 기내의 절반은 작전용 통신기재로 메워져 있었다.

이 1번기는 처음엔 민간항공로를 비행했으나 도중 그 항로를 벗어나 남하하며 이디오피아를 통과하여 케냐의 나이로비(엠바카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에서는 남의 눈을 피하려는 듯 출입 금지구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나이로비 경찰서장외에 수명의 케냐고관밖에 알고 있었다.



◇습격부대의 지휘관 솜론준장.





습격명부에는 페레드사령관의 이름은 없었고 남아프리카연방의 모피상인 시드니·코엔이란 사람이 탄것으로 되어 있었다.

B-707 2번기도 엘알항공의 표지를 달고 같은 경로를 비행하여 나이로비에 착륙했다. 이 비행기는 나이로비에 머문채 병원기로서 부상자의 치료를 맡게 되어 있었다.

2대가 모두 안전하게 착륙하여 급유를 마쳤다는 사실은 나이로비에 있는 엘알항공 사무소로부터 텔렉스로 텔아비브 본사에 통보되었으며 이는 바로 이스라엘군의 참모본부에 보고되었다.

이 결과 습격부대의 발진이 가능해졌다.

■'긴급發進' 명령

7월3일(토요일) 오후에 긴급각의가 소집되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휴일인 사바스로 계율(戒律)이 엄한 종파(宗派)에 속하는 두사람의 각료는 자동차를 타지 않는 규율에따라 도보로 수상관저에 달려왔다.

라빈수상은 전각료에게 군사작전의 승인을 요구하고 성공하지 않을 경우엔 수상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각 각료들은 최후의 의견을 말하면서 활발한 토의가 거듭되었다.

오후3시10분 각의결정이 내려지기 20분전에 습격부대는 샤롬·엘·세이크 근교의 기지로부터 우간다를 향해 장도에 올랐다.

부대는 만약 각의결정이 나지 않을때는 되돌아 오도록 지시받고 있었다.

오후3시반, 각의는 종결되었고 결정에 따라 비로소 부대에 대해 「자네크」(긴급발진하라)의 명령을 내렸다.

## 通過國의 레이다는 襲擊編隊 탐지못해

작전결행의 명령이 부대에 도달한것은 4대의 허큘리즈 수송기(C-130)가 시나이반도의 남쪽끝을 지나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들 수송기는 민간기의 번호를 달고 민간항공로를 날고 있었으나 명령을 수령한 순간부터 무전을 봉쇄하고 앞서가는 비행기를 시인(視認)할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면서 편대를 짜고 우간다를 향해 날았다.

이스라엘영공(領空)을 벗어나 홍해(紅海)에 나서자 편대는 고도를 내렸다.

아랍레이다망에 의한 탐지를 피하기 위해, 편대는 바다에 바싹 닿을정도로 저공(低空)을 날기도했고 난기류(亂氣流)속에 파고 들어가기도 했다.

편대가 홍해상공을 나는 동안 F-4E 팬텀전투기는 허큘리즈의 훨씬 상공에서 그들을 호위했다.

◇이스라엘군의 특수부대 하헤블레가 훈련을 받고있다.

## 管制塔에 "人質과 바꿀 테러리스트들…"

편대는 지부티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이디오피아 영공으로 들어갔고 산악밀림지대를 남하하며 나이로비 상공을 통과했다.

엔테베에 접근했을때 기상이 악화하여 번개가 치면서 기체는 심하게 흔들렸다.

편대는 시계(視界)가 어두운 속을 레이다에 의지하여 더듬듯이 전진비행했다.

다행히 통과국의 레이다는 편대를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했다.

솜론준장과 네타냐프중령이 부하들과 함께 다시한번 구출작업의 요령의 확인을 하고있는동안 편대는 엔테베에의 강하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이로비서 給油

페레드 공군사령관이 탑승한 B-707 1번기도 나이로비에서 급유를 마치고 비행하여 이미 엔테베의 남쪽 빅토리아 호수의 8천m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사령관의 임무는 레이다로 습격 부대의 동정을 추적함과 함께 텔아비브의 참모본부와의 연락을 받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습격 부대에 필요한 원조를 해주는 것이었다.

B-707 1번기의 시계속에 허큘리즈가 8백m의 간격으로 진입해 오는 것이 보였으나 눈아래 보이는 엔테베는 고요했고 아무일도 없는듯이 느껴졌었다.

빅토리아호수 상공이 두꺼운 안개로 덮여있는데도 엔테베 상공은 말끔히 개여 있었다.

엔테베공항의 구(舊)터미널에서는 6일째의 밤을 맞아 지쳐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익숙치 않은 음식때문인지 설사를 만나 변소출입이 잦았고 그 변소는 물이 흐르지 않아 오물 투성이였다.

오후 5시께 아민대통령이 나타나 인질들을 보곤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기위해 모든 수를 다쓰고 있는데 나쁜쪽은 이스라엘 정부입니다』고 빈정거렸다. 그는 예정을 앞당겨 모리셔스의 회의가 채 끝나기전에 돌아온 것이다.

독일인 게릴라 남녀가 입구에서 경계하고 있었고 자벨과 다른 1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총을 [illegible] 순회하고 있었다. 또다른 1명의 게릴라모를 쓴 팔레스티나인이 터미널의 북쪽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큰 일을 치룰듯이 위압적이었으나 그런 한편 우간다정부가 보낸 이집트인 의사는 게릴라중의 한사람과 한가롭게 웃으며 이야기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인질들은 지쳐서 누워있었으며 수명이 트럼프놀이를 즐기고 있었을뿐이다.

■아민偽裝作戰 펴지않아

C-130 1번기에서는 흑인을 가장한 네타냐프 중령과 9명의 부하가 벤츠(검게 칠하여 미리 준비한)에 올라탄채 뒤쪽 출구(出口)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습격부대는 아민대통령이 귀국해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닮은 이스라엘군인을 이용하는 작전은 펴지 않기로 했다.

습격부대는 7시간을 넘는 비행끝에 예정대로 오후10시 45분(우간다시간으로 11시45분)께, 빅토리아 호수 상공에 도달했다.

공항에는 휘황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곧 4대의 수송기는 2개조로 나뉘어 1~2번기는 구활주로에, 3~4번기는 신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자세를 잡았다.

허큘리즈 1번기는 관제탑에게 『인질과 바꿀 이스라엘에 억류중인 테러리스트들을 싣고왔다』고 하면서 착륙허가를 요청했으며 엔진을 줄여 조용하게 착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허큘리즈는 곧 파당하고 소리를 내며 접지(接地), 활주에 들어갔다. 큰 소리를 내지않기위해 프로펠라의 피치는 바꾸지 않았다.

1번기는 이제라도 곧 서치라이트로 조사(照射)당하지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활주로를 빠져 구터미널로 향했다.

1번기에 이어 2번기도 언제든지 급상승이 가능한 태세를 취하면서 활주로에 들어왔다.

3번기는 신활주로에 착륙했다.

1번기도 구터미널앞의 에이프런(포장된부분)으로 다가서서 조용히 멎었다.

공항은 고요했고 경비병도 이변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트랩이 내려지면서 솜론준장이 제일 먼저 뛰어내렸고 후속 대원들은 게릴라와 인질을 찾아 흩어졌다.

비행기에서 내린 벤츠는 구관제탑 근처의 경비초소로 향했다.

그들을 순시중인 상관으로 알고 경례를 하는 경비병에게 소음(消音)장치가 달린 권총을 발사했다. 경비병은 퍽하고 쓰러졌다.

얼굴을 검게 칠한 분장의 효과는 성공적이었다.

## 空港은 고요…異變 못알아채

### 로비서의 銃擊戰은 1분45초로 끝내

그러나 건물안에 돌입했을 경우, 인질들이 우간다 군인과 오인(誤認)할것이 두려워 그곳에서 네타냐프중령은 그리스로 얼굴과 손에 칠한 검정분장을 모두 지워버리고 우간다군의 셔츠도 벗어던졌다.

이때 관제탑은 이상을 알아차렸듯 공항전체가 암흑으로 바뀌었으나 최후의 허큘리즈(4번기)는 훈련의 성과대로 암흑속으로 신활주로에 착륙했다.

구터미널 밖에는 독일인 게릴라 뵈제가 서있었으나 습격대원이 달려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뵈제가 돌연 고개를 돌리면서 자동소총에 손을 댄 순간 찢어지는듯한 총성이 울렸다. 쓰러진것은 뵈제였으며 습격대원이 간발(間一髮)의 차로 그를 쏘아죽인 것이다.

대원중의 한사람이 입구근처에 있었던 독일인 여자게릴라 디테만에게 근접하여 자동소총을 쏘았다. 디테만은 허무하게 쓰러졌다.

대원들은 히브리어로『엎드려, 엎드려』하고 외치면서 건물안에 돌입했다.

자동소총과 권총을 난사해왔으나 대원들이 퍼부은 탄막속에 외마디 소리만 지른채 그들도 죽었다.

인질중의 한사람인 56세의 보로코비치부인이 유탄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린뒤 죽었다. 게릴라중의 하나가 불과 수초전에 쏜 총알이 그녀에게 맞은 것이다.

인질중에는 게릴라에 의한 처형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으나 그 불안도 『이스라엘, 이스라엘』하고 외치는 소리에 사라져버렸다.

5년전에 미국으로부터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19세의 장·자크·바이모니는 일어서려고 하다가 이스라엘군의 총알을 맞고 즉사했다. 그는 요 6일동안 코피를 나누어주고 환자를 구완해 주는등 다른 인질들의 궂은 일을 돌본 좋은 청년이었다.

그를 구하려고 했던 외사중역 코엔도 중상을 입었다.

로비에서의 총격전은 불과 1분45초로 끝났다.

네타냐프중령은 부하와 함께 남은 게릴라를 찾아 2층에 올라가 변소에 숨어있던 둘을 찾아내어 사살했다. 터미널의 북쪽에 있던 또하나의 게릴라도 총격전 결과 사살되었다. 죽은 게릴라들은 모두 7명이라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10명이라고 추측되었으니까 남은 3명은 도망친 것으로 여겨졌다 (이스라엘로 끌고 돌아갔다는 정보도 있다).

구호받은 부상한 인질5명과 군인 4명을 재빨리 끌어내어 2번기의 치료대에 올려놓았다.

◇팔레스티나 게릴라들에게 납치되었다가 이스라엘 특공대에 구출되어 파리 오를리공항에 귀환한 에어·프랑스의 에어버스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에 시달리고 있다.

■蘇製 레이다裝置 노획

공항에서의 전투는 제2단계에 들어가 우간다 경비병에 의한 응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관제탑으로부터의 사격도 한층 격렬했다.

네타냐프중령의 부대가 이를 제압하려고 대전차미사일과 중기관총으로 포화를 퍼부었을때 『벤니 (네타냐프중령의 애칭)가 맞았다』고 누군가가 외쳤다.

그는 등에 탄환을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한번은 일어서려고 했으나 또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습격이 감행되고 있는동안 허큘리즈는 모두 엔진을 끄지않은채 10여명의 대원이 경계하고 있었다.

공항의 신활주로쪽 에이프런에서는 파괴반이 미그전투기를 닥치는대로 폭파하고 있었으며 [illegible] 불꽃이 한여름의 밤하늘에 치솟고 있었다.

다른 일대는 레이다센터를 습격하여 폭약을 장치했다. [illegible]터나 이들 파괴반은 폭파전에 소련제장치를 분해해서 갖고 가는것도 잊지 않았다.

무반동총을 장치한 지프와 인원 수송장갑차에 올라탄 일대는 공항의 메인 게이트에서 캄팔라방면으로부터 공항의 소동을 보고 달려온 우간다군을 요격(邀擊), 격멸시켰다.

또 습격대원은 사살한 7명의 게릴라의 사체와 지프를 싣고 즉시로 비행기에 갖고 들어왔다.

허큘리즈 4대중 1대에는 연료가 80분의 비행분 (나이로비까지는 50분) 밖엔 없었지만 파괴와 폭파가 계속되는 공항에서의 급유는 위험하다하여 기름보급을 받지 않고 나이로비까지 비행하기로 했다.

■人質102명 生還

습격개시후 53분이 지나 인질을 태운 2번기가 내리기 시작한 가랑비속을 우선 이륙했다.

공항에서 4km 떨어진 관저의 아민대통령은 잠이 든채 아직 습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군은 [illegible] 필요없게된 연료펌프 이외엔 지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갖고 돌아가기로 했다.

곧 관제탑과 레이다 센터를 공격한 대원도 기내에 돌아왔다.

2번기에 이어 3번기, 4번기가 이륙하고 1번기가 솜론준장을 태우고 이륙한것은 오전 0시반(우간다시간)이었다.

7월4일 새벽1시반 습격부대가 [illegible] 요전하고 있는 동안 [illegible] 비행기 [illegible] 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기다리고 있는 [illegible] 마음은 [illegible] 했으나 그것도 끝났다. [illegible]

## 襲擊隊長 한명만 사망…偉業기려

### 이름따 「조나단 作戰」命名

3분에 총성이 났으며 인질을 태운 2번기도 예정했던 55분보다 2분 빨리 53분에, 즉 11시54분에 엔테베를 출발했고 마지막으로 1번기가 이륙한 것이 4일의 오전0시30분이었던 것이다.

허큘리즈는 모두 아무 상처도 입지않았고 페레드공군사령관이 탑승했던 B-707은 습격부대에 아무 원조도 할 필요가 없었다.

엔테베를 떠난 허큘리즈에 대해 추적하는 [illegible] 고 습격부대가 파괴한 우간다 미그기는 모두 41대 (미그21 7대, 17 4대)에 이르렀고 [illegible] 우간다군인은 45명이었다.

엔테베철수의 시점에서 구출한 인질은 1백6명중 1백3명이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보로코비치부인과 바이모니청년과 뒤에 나오는 브로크부인의 3명이며 부상자는 11명이었다. (그뒤 인질중의 1명이 나이로비의 병원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1백2명의 인질이 생환한것이니 결국 4명이 사망 혹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습격대에서는 네타냐프중령 하나만이 사망했다.)

인질중의 한사람 도라·브로크부인은 목에 음식이 걸려서 7월3일부터 캄팔라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마침 습격이 감행되었을 무렵(이때 병원은 아직 습격을 모르고 있었다) 캄팔라주재 영국외교관 챙들러씨가 병원을 방문했을때 브로크부인은 깊은 잠을 자고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소식은 그뒤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그녀를 실종으로 처리하고 있다.

■아민도 '훌륭했어' 칭찬

텔아비브의 이스라엘국군참모본부에서는 관계자들이 모여 차 작전의 결과를 숨을 죽여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페레드공군사령관은 구출한 인질을 실은 C-130수송기가 나이로비를 향해 비행중이라고 알려왔으나 상세한 것은 나이로비에 도착한 비행기로부터의 보고가 있을때까지 알길이 없었다.

케냐로 향한 허큘리즈가운데 C-130 2번기가 4일 새벽2시6분(나이로비시간)에 먼저 나이로비에 도착했으며 B-707 지휘관기도 나란히 착륙했다. 부상자를 [illegible] 보잉기에 옮겨져 [illegible] 중상자는 우선적으로 케냐의 국립병원으로 운반되었다.

2번기가 착륙한지 20분후 [illegible] 3, 4번기의 순으로 도착하여 모두 보안경계를 위해 격리된 지역에 집결하였다.

중상을 입은 코엔씨는 치료를 받은 보람도없이 새벽녘에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착륙한지 2시간만에 급유를 마친 4대의 허큘리즈는 지휘관기인 보잉의 선도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중상을 입은 인질 1명과 군인 2명을 케냐국립병원에 남겨둔 병원기(보잉707)도 이스라엘을 향해 이륙했다.

1대의 미국공군의 장거리초계기(哨戒機) P13C오라이언이 그때 마침 나이로비에 와있었는데 그 미국기가 어째서 그곳에 있게된 것인지 까닭은 알수 없었다.

4대의 허큘리즈는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하자 도시와 촌락위를 저공으로 비행했다.

새벽3시의 방송으로 인질구출을 알고 있었던 국민은 환호성으로 이들을 맞았다.

4대는 샤롬·엘·세이크의 발진기지에서 습격대원과 자재(資材)를 내린 다음 오전 11시에 각료와 인질의 가족들이 기다리는 벤·구리온공항으로 개선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을 제외하면 모든 국민이 기쁨으로 엔테베습격을 절찬했다.

관저에서 취침중이던 아민대통령은 새벽 2시20분(우간다시간) 텔아비브로 부터의 전화를 받으며 일어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전에 우간다군을 가르친 이스라엘군사고문단장 발레브 대령이었으나 통화해본결과 그때까지 아민은 사건의 발생을 알지 못하고 있는듯했다.

발레브대령이『여러가지로 수고해주셔서 감사했읍니다』고 말하고, 아민이 『그게 무슨 뜻이지?』하고 물었을때 전화는 끊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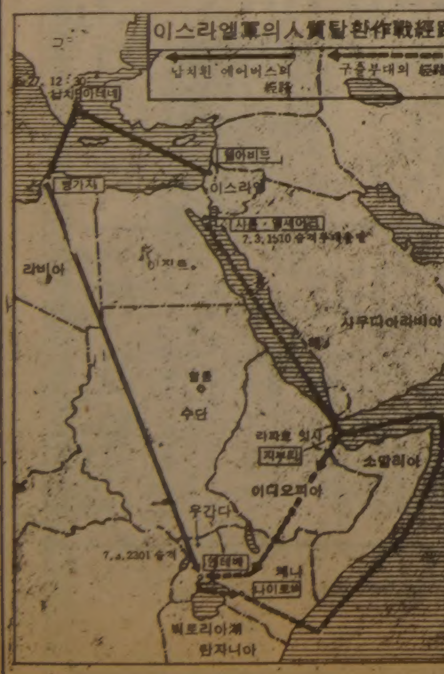
오후 5시께 이번엔, 반대로 아민대통령이 발레브대령을 불러 우간다군인을 사살한 사실과 이스라엘의 망은(忘恩)을 나무랐으나 마지막엔 『직업군인의 눈으로 본다면 습격은 완벽했고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훌륭했어』하고 칭찬했다.

젊은 국가에는 영웅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정부는 전사한 조나단·네타냐프 중령의 공적을 찬양하여 즉시 대령으로 승진시켰고 국민의 요망에 호응하여 습격대원중 생명을 국가에 바친 단1명의 희생자인 대령의 위업을 영원히 자손에게 전하기위해 그 이래 엔테베습격을 「조나단작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此項끝>

◇그리운 고국에 도착, 손을 흔들며 허큘리즈 수송기에서 내려오는 인질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 連載小說

#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畫

㊹

### 지난줄거리

설악산에서 돌아온 효찬이는 동화에 떡치패거리의 도전장을 받는다. 효찬은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 먹었다. 김포 떡치 형은 알고보니 무관법 제의 사현인 셈이었다. 부정 휘발유의 본거지를 없애기 위해 김포 떡치 형 부하들이 [illegible] 있었다. 효찬은 다해를 찾아가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다해의 따귀를 때리고 나와서 신사동 떡치 패거리를 손보러 달려갔다.

술집 앞에 서서 나는 이층 창가로 삐죽이 나온 수건을 보았다. 그것이 신호였다.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그렇게 해두기로 우린 약속하고 있었다.

허리띠를 만져 보았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 가지고 나온 표창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계단을 한단계씩 올라서며 나는 스스로 이런 짓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구한테든 지고 싶지는 않았다.

성질대로 살고 성질대로 휘두르고 싶었다. 나보다 힘없는 자라면 힘껏 돕고 싶지만 나보다 센 척하고 그 센 척하는 힘을 사용하여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자라면 그냥 두고 싶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가운데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신사동 떡치가 빙긋이 웃었다. 그의 표정이나 자세가 자신만만해 보였다. 김포 떡치 형 부하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신사동 떡치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악스럽게 생긴 손바닥 감촉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손바닥을 보면 상대가 어떤 짓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녀석은 두목답게 점잖을 빼는 친구가 아니라 새로 조직한 깡패사회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손장난을 좀 하는 것 같았다.

『솜씨를 좀 볼까하고 불렀읍니다.』

떡치가 여유있게 말했다.

『전에 신세진 게 있어서 자오는 했었지요.』

나는 굵은 목청을 더 낮춰 대꾸했다.

『형씨에 대한 소문은 그 뒤에 들었읍니다. [illegible] 경해서 애들 두엇 데리고 나왔는데 괜찮겠읍니까?』

떡치 뒤에 버티고 서있는 두사내를 가리켰다. 눈빛에 살기가 도는 녀석들이었다. 첫눈에도 예리한 신경조직과 빠른 동작이 예상되는 사내들이었다. 아마 시내쪽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온 것 같았다.

『형씨네 식구 같지 않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이신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말했다.

『가물치 형님이 아끼는 후배를 보내 주셨지요.』

녀석은 느물거렸다. 나는 속으로 떡치의 주변머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가물치 형님이라면 전문가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국적인 두목이었다. 그 휘하에는 역사책에 기록해도 될만한 쟁쟁한 명사들이 많았다. 그들은 보통 전문가들이 아니었다. 순삼이 형이 가물치 형님한테는 한풀 꺾이는 세력이었다.

이른바 가물치파라면 가물치라는 두목을 정점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깡패집단이었다. 몇개 안되는 대조직 가운데에서도 악명이 높은 집단이었다.

가물치라는 것은 물고기 이름이었다. 본명이 정확하지 않은 가물치 형님이란 두목은 자신의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악명 높게 전문가로서 성장한 사내였다.

그의 별명이 가물치가 된 것은 가물치란 물고기가 어쩌나 독종인지 한 우물속에 다른 고기와 같이 놓아두면 며칠 안가서 다른 물고기는 씨도 찾아볼 수 없게 다 먹어 치운다고 하는 데서 얻어진 별명이었다.

그만큼 가물치는 독종이었고 그만큼 그 휘하의 전문가들은 솜씨가 탁월했던 것이다.

그들이 세력다툼을 할 때 나는 아무 편에 서지는 않았지만 가물치 형님파는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었다. 순삼이 형과 김포 떡치 형이 같은 계열이란 걸 안 가물치 형님이 내 실력과 견줄만한 애들을 골라서 보내 준 것 같았다.

『형씨도 가물치 형님을 모십니까?』

내가 확인하기 위해 물었다.

『가물치 형님 수제잡니다.』

은근히 빼기고 나왔다. 나는 피식 웃었다. 가물치 형님이란 존재가 어떻다는 걸 아는 내게 좀 과장된 표현이었다. 그는 이런 조무래기를 이용하면 했지 수제자로 삼지는 않는 거물이었다.

『그럼, 가려 봅시다.』

내가 양복을 벗어 탁자 위에 놓았다. 그쪽 사내들은 이미 스포츠형의 복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의자와 술상들이 말끔히 치워진 술집의 홀은 한 오십여평이 될 것같았다.

## 지는쪽이 무릎꿇고 이긴자의 忠僕되기로 맹세하고
## 재빠른 녀석들도 한대 얻어맞자 비명지르고 쓰러져

『둘중에 선택하시지요.』

떡치가 두 사내를 가리키며 내게 물었다.

『아무라도 상관 않겠소. 두 사람 한꺼번에도 좋소.』

내 대답에 두 사내가 웃었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만 웃었다. 가물치 형님이 내가 그 바닥에서 은퇴한 뒤에 쌓은 솜씨가 어떻다는 걸 미처 간파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 때처럼 빠른 주먹과 발길질 정도라면 여기 나타난 전문가에게 초속을 둘 면키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뒤에 연마한 신비한 무예를 그들이 상대한다는 건 종이로 만든 칼을 들고 진짜 날이 허예게 선 칼에게 도전하는 꼴이었다.

『형씨, 그 치기만만한 것도 오늘로 끝장납니다. 할 얘기 없소?』

『항복하는 쪽이 무릎 꿇고 이기는 쪽에게 충복이 될 것을 맹세합시다.』

『거, 반가운 말씀입니다. 김포에서 오신 분들과 우리 애들을 앞에서 맹세하겠소. 약속을 지키기로.』

『좋습니다.』

우리는 홀 중앙으로 나갔다. 밝은 조명 아래 우리는 마주섰다. 떡치가 데리고 온 가물치의 졸개가 나보다 반뼘은 더 커보였다.

『원하는 무기 있소?』

떡치가 능글맞게 물었다.

『사내가 날려놓고 붙어야지요.』

내가 부러지게 대꾸했다.

하나님, 한주먹에 뻗어버리게 하겠읍니다. 눈 질끈 감고 외면하세요.

녀석의 자세가 신광계의 동작과 합기도의 호랑이 발톱동작이었다. 나는 그냥 멍멍하게 서있었다. 헛주먹질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한방으로 뻗어버리게 할 셈이었다.

나는 성질 급한 놈이었다. 전문가와 붙게 될땐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탁월한 녀석일수록 단 한방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휙, 휙, 휙.

헛바람이 몰았다. 한방만 얻어 걸리면 뼈가 부러질것 같은 빠른 동작으로 공격해 왔다. 나는 가볍게 피하며 녀석의 헛주먹을 주시해 보았다. 여간해서 그런 헛점이 발견되지 않는 동작이었다. 역시 가물치의 휘하에서 놀아먹을 만한 녀석이었다.

쉭, 쉬이익, 쉭쉭.

발길질이 매서웠다. 나법으로 명어지는 녀석의 정지는 빈틈을 주지 않았다. 나는 피하면서 그냥 있다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한대쯤 맞으면서 그 틈에 공격해야 할 것 같았다. 녀석의 공격에 맞부딪치며 힘을 분산시킨 뒤에 가격하는게 안전할 것 같았다. 웬만한 놈이면 한대도 맞부딪칠 필요가 없었는데 녀석은 달랐다.

휙휙.

나는 왼손을 녀석의 옆차기에 밀어넣어 힘을 분산시킨 뒤에 오른손으로 옆구리를 찍었다.

억!

녀석이 바닥으로 뒹굴었다. 나는 녀석의 어깨죽지를 재차 걷어찼다.

녀석이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질렀다.

『저 친구도 마저 덤비시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아 있던 녀석이 공격을 시도했다.

어여!

아까 녀석보다 더 큰 비명소리를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나는 녀석의 얼굴을 짓어 내던졌다. 녀석이 또 그런 채 숨 쉬기를 포기한 듯 메구르르 눕혔다.

나는 돌아서서 떡치를 올려다 보았다. 떡치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무릎 꿇어라.』

녀석의 표정이 굳었다. 나는 성큼 성큼 걸어가 녀석을 앉아 있는 그대로 걷어찼다. 떡치가 계집애같은 비명을 지르며 꿇었다.

『형님, 모시겠읍니다.』

숨소리가 자칫적으로 끊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녀석의 몸뚱이와 어깨사이를 가격했다. 녀석이 앞으로 푹 엎어졌다. 녀석은 다시 일어날 수 없었다.

떡치의 꼬마들이 한꺼번에 떡치를 주무르고 있었다. 아무리 주물러도 녀석은 깨어날수 없었다. 의식마저 혼미해진 상태였다.

나는 다가가 녀석의 혈을 풀어주었다. 차례로 혈이 풀린 녀석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물치 형님한테 그대라. 운 좋게 나한테 걸리면 병신 만들어 줄거라고. 그리고 이 바닥을 내가 접수하겠다고 했다. 가라. 여기 남아 있으면 넌 죽는 날까지 병신으로 살아야 하니까. 알았나?』

『예.』

세 녀석 대답이 똑 같았다.

『갑시다.』

내가 앞장 서서 나왔다. 김포 친구들이 우르르 따라나왔다.

김포 떡치 형이 소식을 전해 온것은 신사동 녀석들을 [illegible] 낸 이튿날이었다.

『비빔밥(가짜 휘발유) 만드는 애들이 이쪽에 꽤 있는 모양야. 쉽게 노출시킬 애들이 아냐. 거기다 목을 매고 사니까 말야.』

『뭔가 낌새가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거 아네요?』

『그래서 오란 거 아냐. 어제 개인택시 운전사네 집에서 불이 났었어.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 쉽게 불길을 잡긴 잡았는데, 내가 보기엔 비빔밥 때문인 것 같았어. 운전사네 집에 기름통이 여러개 있다는 건 아무래도 수상해. 애들이 장난하다가 기름통을 잘못 건드려서 연탄구멍에 흘러들어간 것 같애.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면 그만인데 뭣 때문에 집안에 기름통이 많아야 되겠어. 동네사람들 얘기론 집 앞에 차 세워놓고 가끔 기름 붓는걸 봤다고 하는 걸 보면 비빔밥이 틀림없어.』

『캐봐야 조무라기 같은데요. 개인택시 운전사를 상대하는 건 규모가 작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겠지. 그러나 한 구멍을 캐나가면, 큰 애들이 걸려들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떡치 형 말이 옳을 것 같았다. 절대 비밀을 지켜야 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비빔밥 만드는 조직끼리도 비밀을 지킬 것 같았다.

『알았어요. 우선 가보고 따지죠.』

『같이 갈래?』

떡치 형이, 따라나설 채비를 했다.

『형은 여기 있어요. 일이 있으면 지원요청 할테니까요.』

나는 떡치 형의 부하 한명을 데리고 개인택시 운전사네 집으로 갔다. 불 난 집 치고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집이었다.

『주인 좀 만나러 왔읍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주인인 듯한 사내가 고개를 내밀었다.

『나요. 어디서 오셨소?』

고분고분한 말투가 아니었다. 그 방에는 비슷한 또래의 사내들이 둘러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예, 뭣 좀 여쭤보려고 왔읍니다.』

『말씀하슈.』

러닝셔츠 차림으로 밖으로 나온 사내가 우리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어제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말씀인데요.』

『소방서서 나오셨소?』

내 말을 가로 채며 사내가 대꾸했다.

『그런 건 아니고…그 기름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왔읍니다.』

내가 바싹 달려들어 물었다. 사내가 낯빛이 변하면서도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이려고 했다.

『차 끄는 놈이 여사 아뇨?』

『주유소에서 산 거요?』

『그럼 어디서 사겠소.』

『어느 주유소요?』

『그거야 내 배짱 꼴리는대로 아뇨. 당신들 어디서 왔는데 그러슈.』

『부정휘발유 좀 캐러 다닙니다.』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그렇게 있는체 조차도 모릅니다.』

사내가 버티는 투로 말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죄송하지만 얘기 좀 해보시지요.』

『이거 부단 전에 부채질 하지 마쇼.』

되바라진 목소리였다.

『기름 때문에 생긴 불상사 아닙니까. 가짜 휘발유를 썼다는 동네 사람들 얘기가 있던데요.』

『우린 가짜,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요. 어떤 할일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 했는지 당장 데꾸 와보슈. 뭐 알고 싶거든 소방서 가보슈. 거기서 조사 다 끝내고 갔으니까.』

사내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내 느낌에 그 사내라면 부정 휘발유에 대해 아는 게 있을것 같았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모여 섰던 사내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냥 끌어내서 닦달 좀 할까요?』

떡치 형 졸개 녀석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순리로 해결해야 할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잔자가 미웠기 때문이었다.

『먼저 가. 나 혼자 해볼께. 필요하면 떡치 형한테 말할께.』

『괜찮을까요?』

『걱정 말고.』

녀석이 돌아가고 나자 나는 곧장 소방서로 가서 운전사네 집에 불이 난 얘기를 들었다. 한마디로 휘발유 취급을 잘못해서 생긴 사고라고 했다. 운전사네 집이면 재산상으로 한 두 달분은 보관하는 분량이라고 했다.

나는 별 소득없이 소방서를 나왔다. 직접 당사자와 부딪쳐서 알아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았다.

저녁밥을 먹고 또 찾아갔다. 사내는 당당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도 됩니까?』

『내가 나가리다. 옷좀 입을테니까 잠깐 기다리슈.』

나는 밖으로 나와 대문을 향 [illegible] 았다. 그리고 재빨리 뒤담을 넘어 들어가 안방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사내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illegible] 나를 빼리고 가까운 [illegible]로 들어갔다.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사람 못살게 굴고 어디는 거니까.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은 왜 자꾸 찾아다니며 파헤치고 이러니까? 혹시 공갈 쳐서 돈 뜯어먹으려는 거 아뇨? 정말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나온 거니까 실컷 지껄여 보슈.』

마치 증거인멸에 성공한 완전범죄자가 큰소리 치는 것 같았다.

『알고 왔시다. 수 틀리게 나오면 [illegible]할테니 순순히 얘기하시오.』

『밝혀내면 받으슈. 멀쩡한 사람 잡아놓고 등쳐 먹는 치들이 있다더니 이게 순 그런 치들 아냐?』

목청이 컸다. 마당 앞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나는 사내를 노려보았다.

『파출소에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이게 누굴 핫바지로 알아? 고가지를 자신 분질러 버리기 전에 꺼져. 어린 놈이 무슨 할 짓이 없어서 공갈쳐서 처먹고 살려고 해.』

나는 사내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사내가 바둥대며 악을 썼다.

세 사내가 나를 잡았다. 숫자가 다른걸로 미루어 보아 말리는 체하면서 나를 끌고나갈 것 같았다.

나는 힘이 부쳐서 끌려나오는 것처럼 밖으로 나왔다.

떡 떡 떡.

단 세대로 녀석들은 뻗어 누웠다.

운전사는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순순히 불면 풀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버려두고 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 조져. 내 말 알아들어?』

사내들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쳐들고 내 말을 들었다. 표정을 지었다. [illegible] 사내들이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풀어주면 또 다른 생각을 할지 모를 일이었다.

『순순히 불면 풀어준다. 묻는대로 대답해.』

사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비빔밥 어디서 만들지?』

『Y동 계사 옆이요.』

『너희들이 만드나?』

『우리 형님요.』

『계사는 진짜 닭 키우기 위해 만든거 아니지?』

『위장하려구요.』

숨이 끊길 듯이 안간힘을 쓰며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만들지?』

『우린 몰라요.』

『그럼 어디다 팔아?』

『여기저기요. 아까 그 박씨한테처럼.』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

『대중 없어요. 형님이 알아서 하니까요.』

『정말 몰라?』

『우린 일전도 못해요. 기술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기술자가 따로 있어?』

『네.』

나는 더 묻지 않고 혈을 풀어 주었다.

〈다음주에 계속〉

## 부정 휘발유라고…우린 그런거 모르고사는 사람이오
## 고분고분 안하면 평생 반신불수되게 내버려 둘거야

굴뚝이 지붕밑으로 낮게 배치된民家들 연기를 숨기기위한 목적이었다.

# 韓屋의 굴뚝 왜 낮은가

## 釜山大 曺成基교수 研究발표

## 外侵·內亂때 노출위장

우리나라의재래식 民家(韓屋)는 西洋과 달리 굴뚝이 처마위로 솟아오르지 않은것이 특징. 때문에 먼동이 트기전이나 서양녁, 마치 안개가 동네를 감싼듯이 낮은 연기에덮여있는 마을모습은 典型的인 우리나라 농촌풍경이다.

이처럼 민가의 굴뚝이 낮았던것은 先祖들의 과학적상식이나 건축재료의 부족탓이 아니고 자신과 集團의 存在를 방어상 은폐시키려는 의식때문이었다는 재미있는 學說이 제기되었다.

釜山大 曺成基교수(건축학)는 최근「韓國民家의굴뚝類型에 관한 研究」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생활문화가운데 「温突文化圈」을 형성하게 한 온돌은 5세기경 高句麗에서 발생하여 韓半島남쪽으로 전파, 高麗통일과함께 보편화되었으며 濟州道에는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보급되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온돌구조는 어떤개인의 발명품이아니라 古代취락의 가옥에서 부뚜막이 확대되어 자연발생한것으로 良質의 粘土가풍부했고 연료인 잡목채취가 손쉬워 서민계급에 쉽게 전파될수 있었다. 이와함께 先祖들은 연소가스나 연기가 방안으로 스며들지않도록 通氣力(굴뚝내부의 온도와 外氣온도와의 차이에의한 연기배출능력)을 활용한 排氣口(굴뚝)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굴뚝 높이가 예외없이 처마밑을넘지않는 1m내외이며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특징을보인다는 것이다.

굴뚝에는 簡易型, 獨立型, 複合型등이 있는데 남쪽으로 갈수록 簡易型이 많다. [illegible] 어내어 굴뚝을 집에서 멀리끌면, 複合型은 아궁이와 굴뚝을 여러곳에 낸것이고, 간이형은 본격적인 굴뚝의 전단계로 처마밑에 간단한구멍을 뚫거나 툇마루밑에 구멍을내어 배기하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곧 배출된 연기가 처마에 부딪쳐 아래로 깔려야하며 봉화처럼 신호역할을 하게 위로 솟아서는 안된다는 어떤 共通意識이 선조들에게 내재되었었음을 의미한다. 즉 선조들이 수천년동안 불을때고 살면서 굴뚝이 높아야 불이 잘들인다는 이치와 굴뚝이 낮으면 그 可燃性으로 지붕에 불이붙을 염려가 있다는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볼수는없다는 이론이다.

이처럼 화재위험과 불편을 감내하고서라도 연기를 와도록 은폐하려했던것은 첫째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남에게 極小化시켜 보이려는 意識의 단적인 표현이 習俗化된 것이며 둘째는 잦은 外侵과 內亂의 시달림속에서 본능적으로 자연부락의 위치를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는 集團防禦意識이 내재되어 있었기때문이란 해석이다.

왜냐하면 연기는 곧 식사를 만들고있다는 단적인 표현이며 식사는 곧 인간본능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므로 先祖들의 人間主義的意識構造에서 하나의 과시효과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또한 난방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이전에 生存을위한 自己存在의 極小化를 우선적으로도모했을것이란 풀이이다.

現存하고 있는 굴뚝의 類型은 一孔式·南部島嶼型·二孔式·多孔式·無孔式이있는데 一孔式은 아궁이 하나에 굴뚝하나를 만드는 것으로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남부도서형은 굴뚝을 부엌부뚜막끝벽 모서리에 세워 코쿨(원시적 실내 조명시설)과 비슷하게 꾸민것을 말한다.

이와같이 밝힌 曺교수는 『富의 상징처럼 굴뚝을 높이 쌓는 西歐와 달리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아직도 굴뚝이 낮은 民家가 많아 눈에 띈다』고 말하고 『이런 民家는 굴뚝을 높여 불이 잘들이고 화재위험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 사다트 被擊死亡

## 埃, 1년간 非常선포…後繼 무바라크有力

### 2개월후選擧…탈레부國會議長 잠정代行

【카이로7日=聯合】 안와르 엘·사다트 이집트 대통령(62)은 6일하오7시40분(한국시간) 카이로동부 외곽도시기자市의 나스루 공설운동장에서 군사퍼레이드 참관도중 이집트군 장병 6명으로부터 수류탄과 기관총 공격을 받고 마아디육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후 사망했다. 무바라크부통령은 비상각의를 소집, 총격발생7시간후 사다트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고, 이집트는 사다트의 지도이념과 회교정신에 입각해 국제조약과 종래의 외교정책을 준수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는 1년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각의는 수피·아부·탈레브 국회의장을 2개월후 실시될 대통령선거때까지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무바라크부통령은집권 국민민주당에의해 차기 대통령후보로 지명됐다.

◇被擊직전…査閱臺의 사다트 안와르·사다트이집트대통령이 6일 피격직전 군사퍼레이드 사열대위에서 무바라크부통령㊧및 가잘라국방상과 몇마디 주고받고있는모습. 【카이로6日AP電送=聯合】

### 査閱중 장병6명 수류탄·機關銃 쏴

### 軍 參謀總長등 9명死亡 38명 負傷

6日下午

사다트 대통령은 지난73년 10월전쟁(욤·키푸르전쟁) 8주년기념군사퍼레이드를 사열하던중 왼쪽가슴·목등에 5발의 총탄을 맞았다. 피격으로 압델라브·나비·하페즈군참모총장을 비롯 대통령개인비서 사진사등 내외국인8명이 사망하고 벨기에대사를 포함, 요인38명이 부상했다. 이집트중동통신은 소령1명을 포함 저격범 3명은 사살되고 3명은 체포됐다고보도했다. 베이루트에있는「이집트해방독립기구」등 2개의 망명단체와 1개의 회교혁명단체는 피격사건직후 국제통신사및 보도기관에 전화를걸어 사다트암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서로 주장했다. 7일하오현재 저격사건의 동기및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않고있다. 총격은 퍼레이드가 시작된지 90분쯤지나 절정을 이룰때 기습적으로 일어났다. 사열대앞 20m지점을 통과하던 포트럭대열에서 차량 1대가 이탈, 사열대앞에서 멈추는순간 푸른색베레모에 올리브색전투복을 입은 6명의장병이 사열대로 돌진해가면서 수류탄2개를 던지며 소제 칼라사니꼬 기관총을 난사했다.

사다트암살은 프랑스제미라지전투기 6대가 5색연막을 뿌리며 저공으로 곡예비행, 사열대상공을 통과할때를 틈타 일어났다.

【카이로6日AP·AFP=聯合】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기위한 최종절차인 국민투표가 오는12일 실시된다고 중동통신이 6일밤 보도했다. 이집트국회는 이에앞서 7일특별회의를열고3분의2절대다수결로 단일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데 국회가 선출한 단일후보는 국민투표에의해 인준을 받도록 이집트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집트 국회의 80%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민주당(NDP)은 이날 호스니·무바라크 부통령을 대통령후보로지명했다. 이집트국회가 NDP의 지배하에 있기때문에 무바라크 부통령의 대통령 단일후보선출은 확실한것 같다.

### 10일 葬禮式

【카이로7日UPI=聯合】 故사다트 대통령의 장례행렬은 오는10일 그가 피격당한 나스르市동쪽 교외의 무명용사기념비로부터 출발한다. 장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그는 생존시에『神이 모세에게 十戒命을 내린 성스러운 시나이산밑에 묻히고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사다트는 그곳을 성스러운 땅으로 생각해오기도 했지만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으로 되찾은 땅이기때문에 그곳을 더욱 사랑했다.

### 왼쪽胸部등 네곳에 傷處

### 死因은 神經충격·내출혈

### "병원到着땐 이미 심장멎어"

【카이로6日UPI=聯合】 6일피격, 서거한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인은「심한 신경충격, 내출혈및 좌폐의 상해」라고 6일밤 의료공보가 공식발표했다. 이집트의 마아디 육군병원에서 사다트 대통령의 치료및 수술을 담당한 11명의 의사들이 서명한 이 의료공보는 사다트 대통령이 이날저녁 8시20분(한국시간 이하 같음) 병원으로 후송돼 왔을때 혼수상태에 빠져있었으며 즉각적인 신체기능 점검결과「이미 대통령의 맥박과 혈압은 0의 수준이었고 심장박동 소리도 들을수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는 사다트 대통령이 왼쪽흉부에 두곳, 목에 한곳, 오른쪽 팔에 한곳등 모두 네곳에 상처를 입었으며 그의 왼쪽 엉덩이는 골절돼있었고 이미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공보는 그러나 이같은 상처가 총상에의한것인지 아니면 수류탄 파편에 의한것인지에 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공보는 이어 사다트대통령이 마아디병원에 후송된 직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장기능 촉진기에 의해 응급치료를 받는 한편 외부에서의 심장부마사지와 수혈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다.

## 새強者 무바라크

### 蘇서 訓鍊받은 4星…幅넓은讀書…往年의 하키選手

### 74년中東戰 初戰승리 牽引車역할

故사다트이집트 대통령의 뒤를 이을 강력한 후계자로 지목되고있는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부통령<사진>은 소련에서 훈련을 받은 공군출신으로 지난67년 이집트의 對이스라엘戰 패전의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군을 재편성, 74년 중동전쟁에서 초전을 승리로 이끈 견인차역할을 했다.

과묵한 성격의 무바라크 부통령은 지난74년 4星장군으로 진급된데 이어 75년4월15일 부통령에 임명된후 사다트 대통령의 해외여행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왔다.

그는 부통령이 된 이래 이집트지도층에서 확고한 자리를굳혔으며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 레이건美대통령및 헤이그국무장관등과 회담하고 귀국했다.

軍출신들은 무바라크부통령이 과묵하지만 폭넓은 독서를 하고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스포츠를즐기는 왕년의 하키선수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집트국내에서 女權과 사회복지운동을 하고있는 수잔여사와의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있다. 【카이로=聯】

## "對日安保經協은 시작 非同盟 관계改善 계속"

### 國會 質問·답변 韓·美·日 3角체제강화촉구

南悳祐국무총리는 7일하오『韓美방위조약이 미군의 즉각 개입을 명시하고 있는 나토의 수준은 되지못하나 한국과 미국의 安保협력에있어 條約上표현의차이는 주요치않으며 아무런 장애가되지 않는다는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하고『韓美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南총리는 이날하오 국회本會議에서 의원들의 질문에이같이 답변하고『日本과의 安保經濟協力은 시작한 것이지 끝난것이 아니며 앞으로 양국의 협조와 상호이해를통해 원만히 타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3世界와의 관계개선에 대해『제3세계의 경제적고난등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받은것처럼 후진開途國에 경제원조를할 준비를갖추어야하며 최근 5년간 少額의 원조로 외교목표달성에 기여했다고본다』면서『제3세계와의 외교관계개선과 강화는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南총리는 또『북한과 협력을 맺고있는 소련과 中共이 우리나라에 門戶를 개방하지 않는한 友邦들도 北傀에 문호를 개방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의 對北傀외교의 기본노선이며 이는 대다수우방의 지지를 받고있다』고 밝히고『외교에 있어 강조되어야할 사항은 語學, 정보수집, 변화하는 국제정세 분석능력을 강화하는데있으나 외교가 정부단독으로 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각분야에서 國民의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답변했다.

그는『사다트이집트대통령의 急逝로 우리의 對이집트, 中東외교에는 변함이 없을것이나 사태를예의주시하면서필요한일을하겠다』고답했다.

周永福 국방장관은『韓美합동훈련분석과 北傀가 판 땅굴은 12개이상이며 현재도 수개의 땅굴작업을진행중인것으로판단한다』고 밝히고『우리군은 聽音試錐장비등 최신장비와 전문요원을投入해 탐색작업을 계속중이며 예상침투지역에 병력배치와 장애물설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北傀의 기습공격에대한 對應태세로 韓美연합早期警報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적의 기습에 대해 충분한 시간내에 아군의 전투준비가 가능하기때문에 초전에 적의 공격기세를 설멸제압하고 적의 主力을 섬멸할수있는 대비태세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周장관은 軍은 경제적인 운영을 위해 軍構造연구위원회를 새로 설치, 장기적 眼目에서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있다』다.

그는『방위산업체의 稼得率을 높이기위해 老朽장비의 교체, 미군장비의 정비, 民需品의 並行생산, 防産物資수출촉진, 稅制및 金融지원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李範錫統一院장관은『金日成의 死亡시에관해 勞動黨規에 규정이없어 金正日이 후계자로 나설때 北傀내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틀째계속된 국회本會議의 정치 외교 안보문제에 대한 마지막 對정부질문에는 鄭元民·金鍾植의원(民韓)·金鍾戴(이상 民正)의원 등이 나섰는데 국회는 8일 경제문제에대한 질문을 벌인다.

이날 질문에서 鄭元民의원은 ▲安保분야업무를 종합관장할수있는 기능적 政策▲防衛産業의 가동률을 높이기위해 民需산업으로의 並營방안▲北傀의 連戰連決에 대비한 준비태세와 서울방어시의 질서 유지대책▲北傀의 기습에 대한 조기경보능력 ▲下士官의 자질향상 방안등 주로 國防문제에대해 물었다.

金鍾戴의원은 ▲韓·美상호방위조약을 敵으로부터 무력공격이있을때「즉각出動」할수 있게수정보완하고 ▲中·蘇·北傀의 北方3角體制와 韓·美·日의 南方3角체제에대한 소련의 평양추의에대한 强化방안을강구하라고촉구하고 ▲環太平洋경제협의체의 ▲南北對話의 전망▲올림픽유치가 우리외교와 안보에 미치는영향▲사다트 이집트대통령사망으로 인한 中東정세변화와 한국외교에 미치는 영향등을 물었다.

金鍾植의원(民韓)은 ▲정치규제 조속해제와 對자유중국 우호관계 ▲언론자유의 참다운 보장▲정부이후의 對美관계대비책▲발견되지않은 10여개 땅굴에대한 수색대책 등을물었다.

### 外務部관계관會議

외무부는 7일상오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逝去발표가 있은뒤 金東輝외무차관 주재로 긴급관계관회의를 열고 사다트가 없는 이집트와 우리나라간의 관계, 中東정세등에 관해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이집트가 모든 분야에서 사태를 재빨리 수습해가고 있으며 이집트지역에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 8백여명의 교민들도 모두 안전하다는 카이로 駐在總領事館(총영사 韓錫源)으로부터의 보고를 받았으며 韓·이집트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것으로 분석했다고 회의한 참석자가 전했다.

### 地平線

다른나라들이 마음내키는대로 이집트를 머리숙이게 할수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사라졌다. 아랍세계는 강하다. 보통강한것이 아니다. 다만 약점이 있다면 스스로의 강력함을 충분히 모르고 있는것 뿐이다.─이집트革命을 이끈 낫세르는 그의 自敍傳「革命의 哲學」에서 이렇게 말한일이 있다. ▼낫세르와 이집트혁명을 도와 그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던 사다트는 낫세르가 敗戰에 시달려 심장마비로 죽자 그뒤를 이었는데 배짱좋고 통이큰 정치가로 세계에 알려져왔다. 그는 사다트쇼크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사람의 의표를 곧잘찔렀고 사다트의 被擊死亡소식마저 쇼킹했다. 바로 8년전의 對이스라엘戰 勝戰紀念 퍼레이드에서 查閱을받다가 그린베레군인들의 기습으로 극적인 최후를 마친것이다. ▼사다트는 生前에 宿敵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한다거나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으로 세계를 놀라게했다. 그공로로 이스라엘 베긴수상과 공동으로 78년 노벨평화상을받기도했다. 對이스라엘戰을 위해서는 親蘇정책을써 2만명의 소련군인·기술자를 불러들였는가하면 나중엔 이스라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자 反蘇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소련군인은 물론 외교관까지 몽땅 내쫓아 또한번 그의 두둑한 배짱을보였다. 하나 아랍세계로부터는 對이親交 정책때문에 불만을 사 政情이 늘 불안했다. 결국 이틈새가 쪽발한것이 이번 사건인것같다. ▼貧農의 아들로 태어난 사다트는 낫세르와 사관학교 동기동창이다. 反植民地투쟁에 참가한죄로 2년간복역, 군에서 한때 쫓겨났으나 곧 自由將校團을 결성, 혁명에 앞장섰고 그후엔 알궁모리아, 알타하릴편집장, 장관, 국회의장을지냈다. 그는 영·독·페르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나일의 反亂」「동일성의 추구」등 저서를 낼정도로 문학적 소질도 있었다. 英雄的氣質을 타고나 戰爭과 平和의 極과極을 오고갔으나 그의 소박한 꿈은 鄕里에서의 농사였다. 노벨 평화상금 16만9천달러를 고향에 기증했고「몇년후 평화가 안정되면 下野하겠다고 鄕愁를 털어놓은적도 있었다고한다. ▼영국인과의 혼혈인을 후처로 맞은 그는 기질적으로 미국사람을 좋아했고 서부극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모험을 즐겼으며 카터와는 팔짱을 끼고 걸을 정도로 가까왔다. 사다트없는 이집트, 사다트없는 中東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칭송과 비난이 한몸에 쏠렸던 巨人을 잃은 中東에 거센물결이 한동안 드높을것만은 틀림없겠다.

### 社會漫評

暗雲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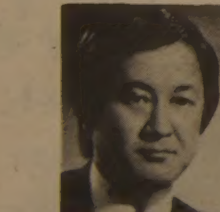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450
은: 온스당 US9.7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년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햄버거 샵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영하

생활가구·생활예술
ecosys
MODERN FURNITURE
멋과 품위를 자랑하는 가구점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섬세한디자인
○최고의 품질
○저렴한가격

2300 YONGE ST. TORONTO
Yonge Eglington Centre
486-0397 김만구

# 사기 女契主 信用金庫法적용 구속

## 檢察、契員 일방적피해 강력단속길터

## 69개 각종契조직 10억詐取

### 고용한 常勤庶務 4명도 구속

수천만원짜리 계를 일시에 수십개씩 운영해온 대규모계의 계주와 서무등 5명이 상호 신용금고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금까지 각종 계 사기는 대개 민사소송으로 끝나거나 형사사건(사기)으로 다루어도 법망을 빠져나가는게 상례여서 계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게 마련이었는데 검찰이 이번에 처음으로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처벌하는길을 열음으로써 계 파동에 대해 제동을 걸수있게 됐다.

### 피해자13명 告訴、契탈때면 "깨졌다"

서울지검형사2부(柳吉善부장·姜智遠검사)는 7일 서울鍾路區鍾路2街 무랑싸롱을 무대로한 대규모낙찰및 번호계를 조직운영해온 계주 金貞愛씨(52·여·무랑싸롱주인)와 이계의 서무들인 白永萬(51·여)、高義康(44·여)、俞貞愛(50·여)、南玎祐씨(50·여)등 모두 5명을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의하면 金씨등은 지난78년9월부터80년4월까지 사이에 3천만원짜리 낙찰계, 번호계등 모두 69개의 일일계、낙찰계、번호계등을 운영해옴으로써 『영리를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 업무를 할때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한다』는 상호신용금고법을 위반한 혐의를받고있다.

검찰수사결과 金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무랑싸롱을 사무실로해 매일 정시출근하는 상근서무를 고용하고 계장부와 인쇄된 계금표를 사용하는등 마치 대규모계회사의 사장처럼 행세해왔으며 계를 운영한 1년8개월동안 첫번째로 계금을 탄것을 비롯 69개계에서 모두 10억6천만원을 타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또 金씨가 운영한 계의 대부분이 필연적으로깨지게될 가능성이 많은 사실을 확인、사기혐의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金씨를 고소한 13명외에도 수십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다른 계원들이 곗돈을 내지않아 계가 깨졌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면서 金씨가 곗돈을 탈차례에 돈을 내주지않았다』고 주장、사기혐의도 인정이 가능하다는것이다.

金씨등이 운영해온 계는 ▲1년8개월동안 1천만원짜리 12구좌번호계 21개▲3천만원짜리 15구좌번호계 20개▲3천만원짜리 31구좌 낙찰계 3개▲2천만원짜리 20구좌 번호계17개▲5백만원짜리26구좌 26일계 3개▲1백만원짜리 12구좌 1일계 5개등 모두 69개에 이른다.

### 해설 대규모契파동에 제동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계파동」이 있어왔다.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의 하나인계가 전통을 이어오면서 목돈을마련하려는 국민들이 너도나도 이용하는바람에 폭발적으로 그수가늘면서 부정적인측면이 그만큼 많아진것. 좋게 말해서 계가 영리적、기업적차원으로 성격이 변모해갔고 그가운데 사기성을 띤것도 많이 끼어들었으니 빚가피한 사회현상인지도 모른다.그러나「계파동」은 항상 소리만컸지 뒷맛이 개운치가 않았다.

아무리 큰계가깨져 피해자가 속출해도 계주가 처음부터 파계(破契)를 예상하고 계를 조직했는지여부를 가려내기가 힘들어 형사처벌이 어렵고 개별적인 민사소송의 대상밖에 되지않았던게 사실이다.

이번에 검찰이 대규모계의 계주를 상호신용금고법을 적용、구속한것은 큰 의미를갖는다고 볼수있다.

투기성이 잠재돼 깨어지기도 쉽고 한번 깨지면 심한경우 계원이 가산을날리는등 피해가 큰데도 사기등의 혐의적용이어려워 실질적인 응징과 견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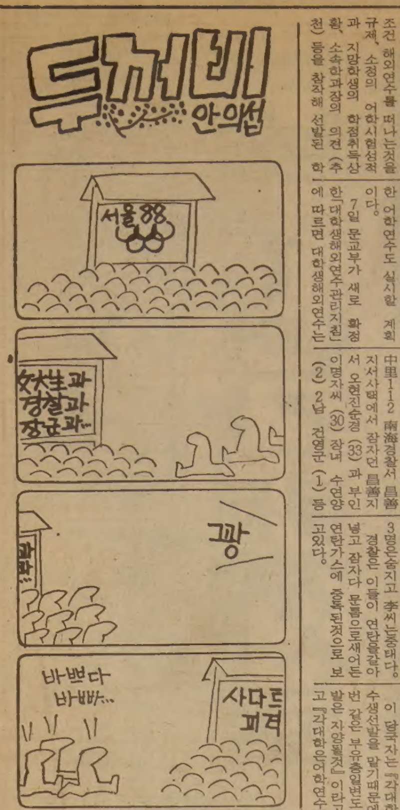
이번에 구속된 계주 金씨가 운영한 2천만원짜리 번호계의 경우 5번과 12번 두 몫을 든 계원은 월2백만원씩 4회를 불입한후 5회째 타게되는 2천만원가운데 불입했던 8백만원만 우선 타가고 나머지 1천2백만원은 계주 金씨에게 맡겨 그이자로 남은 달의 계금을 불입、12회째에 두목4천만원을타가게 돼있다는것. 계산대로라면 4천만원의 공돈이 생긴다는것을 뜻한다.

검찰에 의하면 77년、78년에 부동산 투기붐이 한창일때는 계주로부터 복부인들이 부동산투기자금조달을 위한 금전을 월3할의 고율로 빌려가는일이많아 그이자로 계원의 계금이 불입돼 계가 운영될수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고율이자로 빌려가는 사람이없어 계는 사실상 발을 디딜땅이 없게됐다는것이다. 그러나 계주는『계원들이 곗돈을 내지않아 계가 깨졌으니 나는 책임없다』고버티기때문에 계원들만 골탕을 먹는것이다.

이번 검찰의 법 적용으로 앞으로 사기성이 개재된 대규모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계주들에겐 큰타격이 미쳐 계 파동에는 어느정도 제동이 걸릴것같다.

검찰이『법원의 판례를 구해보기위해 상호 신용금고법을 처음 적용해본 것이다』고 밝히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의 관심이다.

상호 신용금고법은 재무부장관 허가없이 상호 신용계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지속적으로 운영할때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崔善楠기자】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 海外研修生모집 大學에만 허용

### 文敎部 私設업체 一切금지 副作用막아

### 語學·産業技術·유적지見學등 프로그램 多樣化

문교부는 대학생 해외연수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여행사등 각종사설업체의 해외연수생모집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그대신 각대학의 책임하에 소속 대학생가운데서 연수생을 자체모집、파견시키기로했다.

또 출국시의 외환소지한도액을 5백달러(현재 2천달러)로 제한하고 알선창구도 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오는 겨울방학때부터는 전공 또는 실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해외연수를 떠나는것을 규제、소정의 어학시험성적과 지망학생의 학점취득상황、소속학과장의 의견(추천)등을 참작해 선발된 학생에 한해 해외어학연수를 받을수 있게하고 지도교수가 인솔하지않는 연수는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해외에 나가지못하는 학생들의 어학연수와관련、앞으로 미국、일본、동남아지역등의 대학생들을 방학때 국내에 적극유치、어학실력향상과 상호친선을 도모하는 2중효과를 가져오도록하고 외국인교수들을 방학중에 국내대학에 초빙、대학생들과 기숙사등에서 합숙을통한 어학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7일 문교부가 새로 확정한 대학생해외연수관리지침에 따르면 대학생해외연수는 각대학내에 유학및 해외연수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자체기구를 두고 이 기구가 중심이되어 대학별로 연수생의모집과 파견은 물론、프로그램의 개발등 연수관계업무를전담토록했다.

이에따라 오는 겨울방학부터 사설업체의 대학생상대연수알선행위는 금지된다.

이관리지침은 또 대학생의 모든 해외연수는 재학중2회로 제한했다.

이날 문교부당국자는 지난 여름방학 처음실시된 대학생해외연수가 지나친관광위주、과잉쇼핑、사치성연수라는비판을 받았다고 말하고『각대학에 해외연수기능을 맡긴것은 대학생의 연수를 위축시키려는것이 아니라 이같은부작용을 막기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각대학이 연수선발을 맡기때문에 지난번 같은 부유층일변도의 선발은 지양될것』이라고 말하고『각대학은어학연수뿐아니라 전공에따라 산업기술이나 역사적유적지、예술품견학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계획 추진할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 셋죽고 夫人중태 순경一家 참변

### 支署사택서 잠자다 가스中毒

【晋州=聯】 6일상오 10시50분께 경남 南海郡昌善面上中里112 南海경찰서昌善지서사택에서 잠자던 昌善지서 오현진순경(33)과 부인 이명자씨(30) 장녀 수연양(2) 2남 진영군(1) 등 4명이 연탄가스에 중독돼신음중인것을 지서사환 정막점양(17)이 발견、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순경과자녀등 3명은숨지고 李씨는중태다.

경찰은 이들이 연탄을갈아 넣고 잠자다 문틈으로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된것으로 보고있다.

## 都心地 버스 사라진다

### 서울·釜山등 지하철 重點운영

정부는 오는86년까지 서울과 부산도심지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과 전철을 중점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도심지에서는 지하철과 전철만 운행하고 버스는 외곽도시만을 운행토록하는 연계수송체제로 확립하고 전국1백호이상의 마을에 1천2백15개 버스노선을 개설하며、전국1천2백53개면중 택시가없는 1천10개면에 택시를 1~3대씩 투입하기로 했다.

또 철도는 승객의수급사정에 따라 구간·계절·요일별로 요금의 20%안에서 할인또는 할증하는 탄력운임제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탄력운임제는 현재 호남선과 전라선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7일 교통부가발표한 5차5개년계획에 따르면 총9조3백97억원을 투입 ▲서울의 지하철 2·3·4호선과 부산의 지하철1호선을 모두 85년안에 완공하고 ▲서울의위성도시인 京元線(城北-議政府)의 전철을 복선화하는등 지하철·전철중심의교통망을 구축、교통분담률을 서울은현재의 7%에서 40%로、부산은 17%로늘려 대량수송체제를 갖추어 나가기로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전국에 있는 모든시내버스를 현재 1만4천8백80대에서 2만2천1백20대로 증차하고 한버스노선에 여러회사의 버스를 투입해 배차시간조정 서비스등의 공동관리제를 실시하고 승차가 용이한 도시형저상(低床)버스를 개발하며 개인택시를 50%로 확대해나가기로했다.

또 서울-大田간 고속전철은 총1조5백억원을투입 86년에착공、89년에 완공키로 확정했다.

### 달리기 하다 國校生 숨져

7일낮12시께서울城北區貞陵3洞青德국교5학년6반徐美善양(11)이 5백m 달리기를 하다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옮겨져 숨졌다.

徐양은 학교운동회날인 이날 8명1조로 5백m 달리기를 하다 3등으로골인후 쓰러졌는데교사들에의해급히병원으로옮겨지던중 숨졌다.

### 논에 6旬노파시체 논두렁서 失足한듯

【江陵=聯】 7일상오6시30분께 강원도江陵市洪濟洞14통5반앞 논에서 金옥춘씨(68·女·江陵市洪濟洞4통5반)가 숨져있는것을 이곳을 지나던 이마을의 申재출씨(49)가발견 경찰에신고했다.경찰은金씨가 지난4일하오7시께 친척집에간다며 집을나간후 소식이없었다는 金씨가족들의 진술에따라 金씨가 논두렁길을 가다가 높이 50㎝가량의 논두렁에서 실족、변을 당한것으로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가을볕에 살찌는 羊떼

◇해발1,190m 고지대에 자리잡은 한호목장의 면양떼들이 10월의 따스한 가을볕속에서 살쪄가고있다. 濠洲에서 시집온지도 10년이 지나 이젠 완전토착화된 면양은 폐사율도 10%미만으로 원산지보다 낮아 농가부업으로 인기가 높다。면양시세는 6개월짜리가 2만원정도。1마리가 연간4~5㎏의 원모를 생산한다。(전북南原郡雲峰面=鄭範泰기자찍음)

## "닮은男女 태워줬다"

### 三井莊여관까지、택시運轉士 신고

### 警察、증거수집搜査 계속

상경여대생 朴尙恩양(21)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江南경찰서는 용의자 張모군을 귀가시킨 뒤에도 張군에대한 혐의를 풀지않은채 결정적인 증거수집을위해 수사력을 집중키로했다.

한편 수사본부에는 6일하오 東寅상운소속 서울1바9037호 택시운전사 康世榮씨(34·서울江東區岩寺洞岩寺아파트40동202호)가 張군과 비슷한 청년과여자를 사건당일인 지난18일밤9시부터10시사이에 三井莊 여관앞까지 태워주었다는 제보를해와 수사에 활기를 띠고있다.

康씨에 의하면 지난18일하오 9시께 蠶室장미아파트부근 라이프슈퍼마켓앞에서 20대청년이 차를잡아 동행한 여자와 실랑이를벌이다 함께 차에 탔다는것.

康씨는 6일하오 검사의지점신문을받고 풀려난 張군의 얼굴과 뒷모습을 직접보고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18일 태워준 청년과 비슷하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운전사康世榮씨.

### 會計부정 新亭女商 官選理事 파견

서울시교위는 7일 최근 학교회계 부정으로 물의를빚었던 新亭女商이 학교법인 인권학원에 6명의 관선이사를 파견、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도록 했다.

전이사진은 지난달 20일자로 모두 사퇴했다.

새로운 이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丁普燮(변호사) ▲陸泰城(교원공제조합상임감사) ▲尹宗鉉(한국일보논설위원) ▲孫銘煥(中部교육구청장) ▲金顯明(中大附高교장) ▲金永昌(汝矣島高교장)

### 가스爆發 지붕全破 가스工業社 충전실

【光州=聯】 6일 하오4시50분께 光州市西區松岩洞211 대창가스공업사(주인 李光容·34) 충전실에서 가스가폭발、10여평짜리 슬레이트지붕이 전파되고 벽등이무너져내려 1백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냈다.

이날 사고는 종업원 徐炳相씨(34)가 충전실에서 용기밖으로 새어나온 아세틸렌가스를 막기위해 용기에달린 주입기의 나사를 급히 죄다 몽키스패너가 용기에 부딪쳐 일어난 불꽃이 실내에 가득찬 가스에 인화돼 일어났다.

경찰은 주인 李씨와 徐씨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亞洲경기 誘致 施設조사단 19일 來韓

### 4개국代表 北韓답사거쳐

오는 86년도에 열리는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아시안게임) 유치신청국의 시설등을 사전조사하기위한 4개국조사단이 오는19일 서울에 온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 의하면 4개국 조사단은 쿠웨이트의 셰이크·파에드씨(쿠웨이트 올림픽위원회 위원장·IOC위원)를 비롯하여 메타(인도)·촌드리(파키스탄)·사하(네팔)씨등 아시아스포츠계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단의 일원으로 지명됐던 다북·합자씨(말레이지아·IOC위원)는 사정에따라 방한하지 못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訪韓에 앞서 북한에들어가 13일부터 17일까지 경기시설을 살피게 되며、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을방문하여 잠실종합운동장등의 각종스포츠시설을 점검하게 된다.

현재 제10회 아시안게임개최권을 놓고 한국·북한·이라크가 경합중에 있으며、오는 11월27일 印度뉴델리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연맹(AGF) 특별총회서 개최지가 최종 확정된다.

### 5천명 參加예정 내년 印亞洲게임

【뉴델리6日AP=聯】 내년11월 印度의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아시아 각국에서 약5천명의 남녀선수및임원들이 참가하는 사상최대규모의 대회가 될것으로 보인다.

아시안 게임 코치감독위원회의 R·N·미르다 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82년뉴델리 아시안 게임에서는조정·핸드볼·골프등 3종목이 새로 추가돼 총21개종목에 걸쳐 경기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레이저 링復歸 11월新銳와 對決

【뉴욕5日AP=聯】 프로복싱 前세계헤비급챔피언 조·프레이저(37)가 은퇴5년만에 링으로 복귀、오는11월15일 美國의 론리·매스티즈(24)와 경기를 벌일것으로 5일 알려졌다.

### 통합辯護士會 진상調査團구성

서울통합변호사회(회장 曺圭光)는 7일 회산하인권옹호위원회를열고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법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를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조사단(단장 韓允洙변호사)은 오는 14일까지 7일동안 서울元曉路尹景花씨 피살사건、여대생朴尙恩양 피살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수사형사와 이들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및 그 가족들을 만나 인권침해사례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전자 오락 기계(게임 머신) 판매 및 렌트

○투자없이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여러종류의 머신을 주기적으로 교환
○신속한 에프터써비스(고장·수리)

※이익금으로 스토아 렌트 해결보장

VIDEO AMUSEMENTS OF CANADA
MANUFACTURER'S OF COIN OPERATIVE VIDEO GAMES
임 경 진 (JIN LIM) 416/ 273·5323

윈타리오가 바뀌었읍니다.
지금 모든 티켙은 1,000번이상의 당첨될기회를 갖읍니다.
윈타리오만이 한두번호에 의해 그랜드 상금을 놓치는 것을 압니다.
윈타리오만이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윈타리오.
지금은 당첨확율이 더가까워졌읍니다.

# TV畫面변화로 生動感

최근들어 TV화면이 눈에 띄게 달라져가고 있다. 뉴스프로에 움직이는 도표가 나타나는가하면 스포츠프로에 살아있는 만화가 나와 내용을 암시한다. 또 쇼프로그램 화면이 와대됐다가 축소되고 회전도하며 장면이 바뀔때는 다채가나. 따라서 화면의 구성은 다양한 변화로해서 생동감이 넘친다. 종래의 정적인 화면은 동적인 화면으로 바뀌어 시청자들의 눈을 자극하여 재미를 갖게한다. 특히 보도프로그램과 쇼등 오락프로그램에서 이같은 화면의 변화를 쉽게알아볼수 있다.

## 文字발생기와 스퀴줌活用

이는 TV에 문자발생기와 스퀴줌의 도입활용으로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기상위성 수신장치의 도입으로 기상위성사진을 브라운관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됐다.

KBS와 MBC는 지난1월 문자발생기와 스퀴줌을도입, 화면의 활성화를 꾀해왔다. 이제는 그러한 변모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 것.

문자발생기 (싯가1억7천만원정도)는 KBS와 MBC가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 문자발생기는 움직이는 화면을 구성, 시각효과를 높여준다. 특히 자막의 처리에서는 무엇도 따르지 못할 신속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그림이나 도표를 그려낼 수 있어 시청자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생동감있는 화면구성으로 지리함을 덜어준다. 특히 사건보도에 있어서 사건경위를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도표나 스포츠안내, 일기예보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화면의 다양성을 높이고 생동감을 붐어넣는다. 또한 필름에 의존하던 종래의 애니메이션보다 효과가 큰뿐아니라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대폭 절약되는 잇점이 있다. 4분짜리 애니메이션의 경우 필름을 사용하면 2백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문자발생기는 감가상각비만으로 충분하다. 제작기간도 4분짜리필름의 경우 7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문자발생기는 2시간정도면 끝낼 수 있다고 한다.

문자발생기가 화면을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사용된다면 스퀴줌(싯가 1억7천만원정도)은 화면전체를 움직여 활력있는 변화를 유도한다.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있는 崔淳鎬.

# 崔淳鎬에 耳目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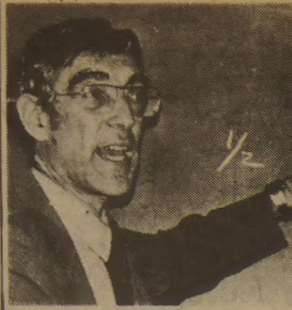
## 스페인프로팀 監督이 스카웃提議

## 濠 프로3팀 費用부담 留學 권유

해외 프로축구팀 관계자들이 한국축구대표팀 花郞의 주공격수이자 청소년대표팀의 대들보인 崔淳鎬를 탐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79년 東京제2회대회때의 마라도나, 디아스와같은 슈퍼스타가 없는탓도있지만 崔淳鎬가 이탈리아와의 첫게임에서 2골을 넣고 2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맹활약을 보이자 이곳에 모인 세계각국의 축구인들은 눈이 번쩍뜨인듯 崔를 주목하고 있다.

스페인청소년팀의 경기관전을 위해 濠洲에 온 스페인프로팀 바르세로나의 감독 헬레니오·헤레나씨는 7일 崔의 경기를보기위해 아델라이드에서 멜번으로 날아와 『과연』하고 무릎을쳤다. 헤레나씨는 한국 ─루마니아전이 끝난뒤 한국팀벤치로 찾아와 『崔는 뛰어난선수다. 가능하면 스카웃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崔에대해 이것저것을물고 돌아갔다.

또한 멜번에 적을두고있는 濠洲축구리그의 상위3팀 그린그리, 에센도, 도브티롱은 崔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것이니 濠洲멜번에서 축구유학을 하는것이 어떻겠느냐고제의했다. 【멜번=千一平특파원】



◇부르스·N·에임스박사

인터뷰

# 癌예방은 發癌物質 멀리하는길뿐

## 세미나참가차 來韓한 美 에임스박사

## 현재까지 1千여종 찾아내

## 「에임스法」개발 실험기간 하루로단축

## 抗發癌劑연구활발…비타민E 대표적

『세상엔 대략 4백만종에달하는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 10%정도는 암을 일으킬수 있는 것들 (發癌物質)이지요』

美 대통령 암자문위원이며 「에임스 실험법」을 창안,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버클리大生化學교수 브루스·N·에임스박사의 말이다.

에임스박사는 지난 2일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회장 趙完圭) 주최로 서울대학교병원A강당에서 가진 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국제심포지엄에참가, 「돌연변이원과 발암원및 항발암원」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에임스박사는 유수한 전세계 3천여 실험실이 발암물질을 찾기위해 힘을기울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발암물질만도 1천여종에 이른다고했다.

『발암물질을 확인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한가지 물질을 동물실험을 통해 발암성을 확인하는 일 만도 2년은 가져야 해요』

에임스 박사는 그러나 자신이 개발한 이른바 에임스 실험법을 이용할때 이같은 일을 하루정도면 가능하다고 한다. 에임스 실험법이란 세균을 이용 돌연변이현상을 알아 보는것인데 돌연변이를 일으킨물질은 80%정도가 발암물질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암물질은 물질에따라 독성이 달라요. 따라서 발암물질은 종류별로 독성의 정도를 가릴 필요가 있어요』

에임스박사는 동물실험에서 사카린을 체중 kg당 5g씩 매일 먹이게 되면 일생동안 50%정도가 암에 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살충제인 EDB는 이보다 독성이 5천배정도 강해서 체중 kg당 1mg씩 매일 먹이게되면 같은 결과를 빚는다. 그런가하면 땅콩과 같은 곳에 잘 피는 곰팡이의 일종이 만들어내는 아플라톡신이란 물질은 사카린보다 5백만배나 강한 독성을 나타내 체중 kg당 마이크로 g을 매일 먹이게되면 일생동안 역시 50%정도가 암에 걸려 죽게된다는 설명이다.

『암을 예방하는 길은 우선 확인된 이들 발암물질로부터 멀리하는 일이지요. 담배가 폐암을 비롯, 각종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흡연인구는 줄지 않고 있어요』

에임스박사는 담배속의 타르란 발암물질은 그렇게 강력한것은 아니나 이들도 타르가 20mg 들어있는 궐련을 하루 10개비씩 40년 피우게되면 암발병률을 크게 높여 평균수명을 8년정도 단축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하루에 궐련 두갑을 피우게되면 75살을살수있는 사람도 65세밖에 살지못하게 된다고 했다.

『발암물질은 사람이 만들어낸 화학물질뿐 아니라 천연물질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발암물질이 확인되어도 실제로 이들을모두 우리생활로부터 추방한다는 일은 어려워요. 뿐만아니라 어떤물질은 우리몸속에서 발암물질로 둔갑하는 일까지 있지요』

에임스박사는 따라서 최근엔 발암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암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항발암물질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항발암물질 가운데는 비타민C와 E등이 알려져있다고. 그러나 이들의 작용은아직은크게 기대할수없는것이라고덧붙였다.

#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㊅④

## 「初代內務」시절

## 첫目標를「秩序유지」로…人選에 고충

## 治安잡혔으나 獵官운동으로 雜音도

내무장관에 취임한 나는 사실 무거운책임감속에 걱정이 태산같았다. 지방이나 치안행정에 전혀 白紙인데다 建國초의 지방행정이나 경찰조직은 허술하기짝이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대야할지 난감했다. 며칠두고 곰곰히 생각한끝에 제1의 목표를 질서유지에두었다. 질서확립, 즉명랑한 치안유지만이 建國의 기틀을 확고히하다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것이다.

그당시도 혼란의 소용돌이는 여전했고 지하에 숨은 좌익의 테러가 언제 어느곳에서 터질지 모를불안한 상황이었다.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내무행정과 治安체제를 정비해 국민들이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하는 일이었다. 이를위해 먼저 서두른것이치안과 행정 두기구에대한 人事였다.

나는 情實이나 청탁을 배제하고 능력있는 인물을 찾기에 애썼다. 그러나 참신한 인물만을 찾겠다는 노력은 처음부터 벽에 부딪쳤다. 「머리」는 있으나 행정의 중요한 요체인 경험있는 인물들이 별로없었다.

治安은 급박한 상황인데 人選은 한없이 시간이 필요했다. 정부가 수립된후 행정원칙중의 하나는 경험자를 확보, 능률행정을 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원칙대로 한다면 日帝下에서 일한 관리나 有경험자가 필요했다. 내무행정엔 더욱그러했다.

나는 日帝下에서 일한 인물들을 꺼렸으나 그들을 다 제쳐놓는다면 행정이 하루아침에 마비될 판이었다. 인사에 苦心끝에 먼저 내무부 지방국장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李泰完씨를기용했다. 그리고 그의의견을 존중, 각 지방의 행정사무와 경찰사무직에 日帝시대에 경험있는인물들을 썼다.

日帝下의 인물들을 썼다고 비난을 받기 십상이었지만 당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치안유지는 커녕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물론 日帝下에서 때 묻지않고 행정을 맡아 일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당시 나를 보좌해준 인물중엔 내무차관 黃義贊 비서실장 玄錫虎를 비롯 韓東錫, 韓熙錫, 李益興, 金元泰, 李夏榮등이 있었다. 훗날 政界와 행정부의 要職을지낸 그들은 모두 능력있는 俊才들이었다.

◇1948년가을 初代내무장관에 취임한 후 처음으로 각지방 初度순시에 나섰을때 筆者모습.

초기내무행정에서는 지방道伯들의 임무가 막중했다. 도지사들을임명할 때는 제헌국회에서도 여러의원이 차출됐다. 지금같으면 도지사를 하다 의원으로「格上」(?)되는 것이 관례지만 그때는 제헌의원자리를 내놓고 도지사를 했다. 도지사들중에서도 日帝때 有경험자나 日帝시 高文시험에 패스한 사람들을 제법 썼다.

그렇게 능력본위로 사람을 쓰다보니 일부에선 내가 親日派를 重用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마침 그 시기가 국회에서 反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될 무렵이었다. 나는 할말은 해야했다. 『정치란 현실이다. 독립운동만 해온 혁명가나 志士들은 국내현실에 어둡기 마련이라 국내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면서 나는 日帝에 협력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악질적인 親日분자, 애국자를 죽인 인물등은 처벌하되 時利에 편승한 다수의 사람들을 모두 친일분자로 낙인찍어 제거할 수는 없다는게 당시의 내 생각이었다.

내무장관 몇개월에 큰 사건도 많이 치렀다. 취임 1개월쯤된 9월 중순께 內板역에서 특급열차끼리부딪쳐 美軍24명, 한국인1명이 숨지고 1백여명의 부상자를 내는 해방후 최대의 철도사고가 일어났다. 이사고로 다수의 美軍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나는 정부를 대표해 무초美대사와 쿨터미군사령관을 반도호텔로 찾아가 정중한 弔意를 전했다. 그로부터 한달뒤쯤 세상을 경악케한 麗順반란사건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따로 얘기하기로 한다.

나의 초대내무장관시절, 곳곳에서는 獵官운동이 성행했다. 지방에서 돈보따리같은 걸 싸들고 서울로 몰려드는통에 官衙인근의여관은 만원상태였다. 자연히 상식에 벗어난 행동과 잡음이 많이 일어났다. 곳곳에서 사기, 협잡극이 일어났고 그가운데 가산을탕진한사람들이 적지않다는 얘기가 내귀에까지들려왔다.

급기야는 내무장관에 뇌물을 주고 군수, 시장, 面長운동을 한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내무장관에 金盤床을 해다바치고 엽관운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李 대통령은 나중엔 서울시내 金銀商을 다뒤져보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금이 날개돋쳐 官衙에 돌아다닌다고하니 그 실상을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조사하고 야단이 났다.

건국초기에 이야단을했으니 당시의 사회상을 짐작할만하다.

나는 부정의 근원을 캐내 뿌리를 뽑으려고 애를썼다. 부하 직원들에겐 번번이 몸가짐을 바로하고 官紀를 엄정히하도록 엄명을 내리기도했다.

내무를 맡은지후 행정은 그런대로 기초를 잡았으나 治安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나는 내무차관보겸 치안국장에 李錫天을 임명해 그로하여금 治安에 전력하도록했다. 그러던중 잊지못할 惡夢의 10월이 닥쳐왔다. 麗順叛亂사건이 터진것이다.

# 國際스포츠 用具展 내년 서울서

체육진흥재단은 오는 88년 서울올림픽개최에 대비, 스포츠용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위해 내년 4월 서울永東의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제1회 국제스포츠 용구및 레저용품박람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李柱浩 진흥재단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 국제전시회에는 美國·西獨·프랑스·英國등 세계 20여개국의 유명한 스포츠용구 제조회사들이 참가, 직접 관람자들에게 전시품을 판매까지 할수있도록하여 수익금중 5천~7천만원상당을 진흥재단기금으로 모금도 할수있게 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진흥재단은 또 이 스포츠용구전시회를 계기로 선진기술을 습득, 88년 올림픽때까지 스포츠용구의 상당부분을 국산화토록 함으로써 경기력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화를 꾀하는한편 스포츠용구의 적극적인 수출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世界 청소년蹴球 루마니아에 憤敗

## 브라질 꺾어야 本選진출 가능

【멜번=千一平특파원】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은 8일 하오 6시45분(한국시간하오5시45분) 브라질과 제3회세계청소년축구대회 예선마지막경기를 벌인다.

한국이 자력으로 본선에진출하는 길은 對브라질전에서 이기는 길뿐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브라질과비겨도 본선진출이 가능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기대할수없는 일이다.

한국은 브라질에 이기면 최소한 2위가되어 본선에나갈수 있다. 만약 한국이 브라질과 비기게되면 이탈리아가 루마니아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야만 루마니아를 제치고 2위에 나설수있다.

6일하오에 벌어진 B조예선 2차전서 우리나라청소년대표팀은 신장과주력이 우세한 루마니아에 1-0으로분패, 1승1패를 기록했다.

# 國體聖火 9일採火

제62회 전국체전을밝힐 성화가 9일 상오 10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서 채화되어4백56명의 주자에의해 서울운동장까지 봉송된다.

채화식은 韓世櫂강화군수의 집전으로 거행되는데 徐潤福성화부장이 태양열로 채화된 성화를 최초주자 辛圭煥군(강화종고3년)에게 전달, 90.5㎞의 봉송길에 오르게된다.

# 英聯邦경기 參加

## 뉴질랜드와 함께 阿洲國들

【멜번5日AP=聯】로버트·무가베 짐바브웨首相은 5일 내년 브리즈베인에서 열릴 英聯邦경기대회에 뉴질랜드가 참가한다하더라도 흑인아프리카국가들은 이대회를 보이코트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무가베 수상은 이날 호주의 멜번·에이지紙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인종차별국가인 南阿共和國 스프링보크럭비팀의 뉴질랜드 순회경기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뉴질랜드의 영연방경기대회 참가가봉쇄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

# 流星의 賦

明暗㉒

<202>

李炳注 作 李友範 畵

이영을 만날 때마다 아는 것도 많아지고 배우는 것도 늘어갔지만 그만큼 걱정거리도 불어가는 셈이었다. 한데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일에 흐르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면 한량이 없는 것이다.

이영과의 대화가 있은 3일 후 홍계남은 굴신(屈伸)한 끝에 드디어 하나의 일을 결행하기로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금강광을 그냥 돌려보내선 안된다)

고 마음을 먹은 계남은 금강광이 투숙하고 있는 빈관(賓館)의 구조를 소상하게 살핀 끝에 그날 밤 금강광이 자고 있는 방으로 서단자가 달린 흰살을 쏘아놓았다. 그것은 귀신이 탄복할만한 솜씨였다. 가늘게 짜인 창살틈을 뚫어 방한쪽 벽에 감쪽같이 꽂혔으니 말이다.

금강광이 혼비백산 했을 것은 틀림이 없다. 그 서단자엔 다음과 같이 한문으로 적혀있었다.

『금강광 보아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너가 취한 방자한 언동은 너 자신이 잘 알고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 조정에서 널리 심히 탓하지 않는 것은 사람같지 않은 소인배(小人輩)를 상대로 하는 것은 군자가 취할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정(市井)에 있는 우리들이야 어찌 그런 체면에 구애될 수 있으랴. 당장 대천강벌(代天降罰)할 것이로되 네가 두고 온 가족을 불쌍히 여겨 살려두는것이니 명심할지니라. 빨리 귀국을 서둘러라. 너의 나라에 돌아가거든 우리나라의 순후한 인심을 말하고 외람되게 사단을 벌이지 않게 삼가도록 일러라. 한성시정(漢城市井)의 선비 엄히 경고한다』

이에 대해 금강광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진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는 그 이튿날 발정(發程)을 서둘며 관계관에게 자기의 생명을 보전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다고 했다.

임금은 이 통쾌한 소문을 듣고 조용히 이영을 불렀다.

『우리나라에 그런 쾌걸(快傑)이 있다는걸 알수 있었으니 심히 반갑구나. 그리고 그 뛰어난 궁술(弓術)이 마음에 든다. 과연 그 사람이 누구일까. 자네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게』

이영은 필시 홍계남이 한 짓이라고 알았지만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고 짐작하곤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나서지 않는한 한강 백사장에서 금싸라기를 찾는 노릇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나 힘써 찾아보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말을 아뢰고 퇴출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계남의 집에 들렀다. 계남이 집에 있었다.

『자네 활을 구경시켜 주지 않으려나』

『왜 그러십니까』

『자네가 언제인가 명궁(名弓)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계남이 벽장에서 활을 꺼내 놓았다.

이영이 그 활을 들고 찬찬히 살펴보더니 두번 말했다.

『요즘에 쏜 적이 있군』

『어떻게 압니까』

『활 줄에 기름을 먹인게 요즘에 한일 아닌가. 게다가 먼지가 없군』

계남이 묵묵할 뿐이었다.

『알았다. 언젠가 사궁대회(射弓大會)를 가져야겠군』

이영은 그이상 말하지 않았다.

# 모든 흙이 위의 生

돌개바람 불다㉒

趙善作 作 金光培 畵

<221>

나는 그들이 꼭 그곳에 갔을거라는생각이었으며, 역앞 광장에서 다시 택시를 대절했다.

도고는 천안에서 온양까지 만큼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택시는 빈 포장 도로를 날듯이 달렸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나를 도고의 호텔에 내려주었다. 그런데 일행은 그곳에도 투숙되어있지 않았다. 그곳 호텔의 프런트 서기는 맹세코 말씀드리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어젯밤이래로 새로운 손님이 찾아온 일은 없었다고 잘라 말한것이다.

나는 비로소 가동하기 시작한 새벽 노선 버스를 타고 힘없이 온양으로 되돌아왔다. 이제 여섯시가 넘었고, 온양의 거리는 이미날이 훤하게 밝아져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훤하게 밝혀진 다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느라고 부시시 깨어나는 거리에서 나는 우연하게 그들일행을 발견한것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나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거리를걸었다. 온양에 자리잡은 거의 모든 숙박업소를 뒤져야 한다는 불가능한 임무앞에 투지를 불태우고 있기는 했어도 내몸은 이미 재로 사그라들어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웬 일일까.

그들 일행이 내시선의 끝, 그러니까 반대편 보도의 모퉁이를 돌아 택시에서 내렸던 것이다. 처음에 나는무심코 바라보았다가는 깜짝놀라서 근처에 있는 음식점외세워 놓게 되어 있는 간판뒤에 몸을 숨겼다. 쪼그리고앉은자세로 나는간판위에 눈만올려놓고 그들의 동정을 살폈다.

그렇게 일행의동정을 살피면서도 나는 내 눈을 완전하게 믿을수는 없었다. 혹시 환영(幻影)을 보고있는게 아닌가 싶어 나는 몇번이고 눈을 깜빡여 보았다. 간밤 부산에서부터 밤새도록 그들을 추적한 일이 사실 나는 현실의 일같지가 않았다. 더구나 열차에서 뛰어 내린 뒤의 급박한 추적, 도고까지달려갔다 온 일따위는 마치 의식불명의 환자가본 명부(冥府)의 세계처럼 아리송한 환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새벽시로 온양에 내렸으며, 그들의 그런느낌은 나로 하여금 마치 시간을 앞질러 여행하고 온 사람처럼 더욱 알쏭달쏭한 상태로 밀어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출현은 환각이 아니었다. 천안역에서 그들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내가 너무 서둘렀다는 차이 밖에 없는 명료한 현실이었다. 나는 택시에서내린 그들이 거리를 배회하지도 않고 곧장 바로 그앞에있는 제법 규모가 큰 여관의 현관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나는 무너지듯이 제자리에 주저 앉았다. 밤새도록 계속된 추적의 결과는 엉뚱한 곳에서 해피 엔딩으로 끝난 셈인데, 나는 너무도 갑작스럽게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다. 나는 그자리에 다리를펴고 눕기라도 할지경이었다.

얼마동안 나는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이제는 뛰고 달리고 다치고 할 일은 없었으며, 그가 묵고 있는 방으로 스며들기만 하면 되었다. 서두를 필요도 없었다. 이월 일일까지는 아직도 며칠이 더 남아 있었으며, 남은 며칠동안 만전을기하면 되었다.

눈에 띄는 근처의 약국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약국으로 갔다. 약국에서 나는 머큐로큐롬과 거즈와 밴디즈 따위를 샀다. 약국의 손님용 긴의자에 앉아 나는 내 몸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했다. 가위로 거즈와 밴디즈를 오려 상처난 부위에 맵시있게 장식했다. 이제 그들이 투숙한 여관으로 잠입할 차례였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여관으로 갔다. 그들은 우선 잠부터 자둘테니까. 그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숨어서 잠입하는 것이 안전할 테니까.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巨龜莊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NEW REDUCE PRICES

새로운경영, 새로운메뉴, 새로운 맛

한국요리
● 즉석불고기, 멍게
● 선지피해장국, 생선회

중국요리
● 본고장의 진미, 중국식 부페
● 매일 각종신선한 SEAFOOD써비스

크리스마스 파티 예약접수중

가수 신현희 양
— 과거 미8군 무대에서 활약
— 오리엔탈 쥬얼스의 리더
— 유럽순회, 미국, 남미 순회공연
— 가수경력13년
— 악기(기타·쌕스폰)연주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선남

# 캐나다 외환은행 개점

저희 캐나다 외환은행이 10월6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읍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은행을 더욱 아껴주시고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캐나다 은행이 제공하는 모든종류의 은행업무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우리말로 봉사해 드리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캐나다외환은행장 최 승 낙

---

## 영 업 안 내

영업시간 : 오전 9 시 ~ 오후 4 시

영업장소 : 2 FIRST CANADIAN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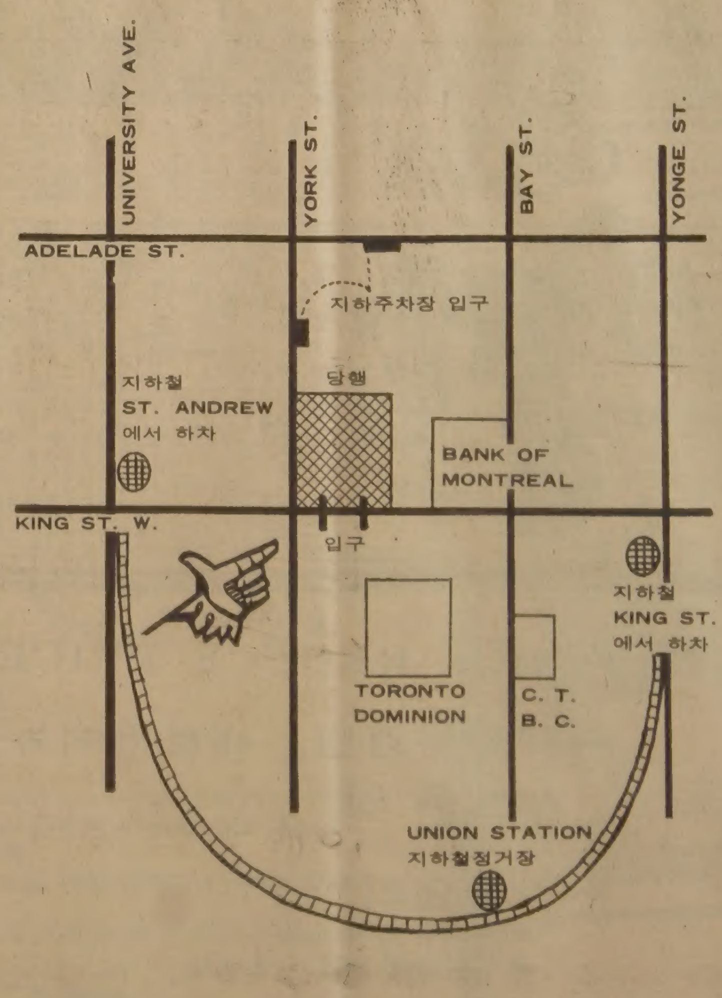
영업내용 : 송 금 업무
예 금 업무
적 금 업무
대 출 업무
수출입 업무

서브웨이를 이용하시면은 YONGE트레인을 타시고 KING이나 ST. ANDREW 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입구는 KING ST. 쪽에 있읍니다.

(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FIRST CANADIAN PLACE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요. 주차장 입구는 YORK ST. 나 ADELADE ST. 에 있읍니다.)

## 약 도

지하철이용안내




전화 : 364—2890

## 채용안내문

새로 탄생한 캐나다 외환은행에서 저희들과 함께 일할 TELLER를 찾읍니다

관심있는 분은 이력서와 사진을 저희 은행에 보내주십시오.

주소 :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P. O. BOX 402
TORONTO, ONT.
M5X 1E3

# 캐나다외환은행